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2020 봄·여름호



실천하는 인지학

반도르프 교육예술





봄철 계절탁자 - 수공예 연구원 한은숙 작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로, 입춘(2월 4일경)에서부터 입하(5월 5일경) 전까지를 말한다.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봄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을 봄이라 한다. 봄은 초목의 싹이 트고 성장을 시작하는 따뜻한 계절, 부활과 소생, 성장과 희망의 계절이다. 동물들 역시 겨울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하여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계절탁자를 꾸밀 때에는 공중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 속을 뚫고 새 생명을 싹틔우는 어린 싹을 연두색으로 표현하고 조금씩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꽃을 잔잔하게 꽃아주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 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후 돌봄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교육 전문 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에 설립된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05 2020 겨울 교사 아카데미

- 06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16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25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 31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33 집중코스

- 34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 37 인지학과 예술

39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43 인지학센터 20주년 특집

- 44 인지학센터가 걸어온 길
- 48 길종각 선생님이 전하는 센터의 태동기
- 51 우리가 꿈꾸는 인지학 마을
- 53 인지학센터 연대표
- 54 인지학센터의 어제와 오늘

56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 57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
- 58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 59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 60 숲속나무어린이집
- 61 향동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 63 담양 살구나무 킨더가르텐

65 빛나는 2020, 여럿이 함께

- 66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국제컨퍼런스
- 68 2020년 상반기 이모저모
- 72 도서 소개
- 76 뜨거운 응원
- 8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82 광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20 봄 · 여름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이장미
편집팀 송지윤, 장주현, 허지혜
디자인 김다운
표지그림 다니엘 모로
도움주신 분들 김송미, 김태영, 백미경, 여상훈
제작 씽크스마트

발행일 2020년 06월 05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 6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http://steinercenter.org>

2020 겨울 교사 아카데미

05 2020 겨울 교사 아카데미

06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16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25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31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구성된 본 과정 중에서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0년 겨울 아카데미는 10기의 두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0. 1. 6(월) ~ 1. 12(일) 8:30-18:30 (89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발도르프 교육학의 인간상

7년 주기론(0세-21세)

교수방법론 I

마리 루이제 콤파니(Marie-Luise Compagnon) / 통역 여상훈

놀이의 발달(0-7세)

영아반과 유아반의 하루 리듬

교수방법론 II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 / 통역 이소윤

유아교사를 위한 감각론

어린이의 경험세계와 놀이발달을 조소로 체험하기

“나는 집을 짓고 있어요!” 애착과 관계형성의 과정

성인의 감각발달을 위해 구와 삼각형 만들기

수공예

한은숙

만 3-5세를 위한 놀잇감 만들기(초롱이 인형)

발도르프 교육학의 인간상, 7년 주기론

마르셀 드 레이브(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진정한 교육자는 질문합니다. 교사인 나는 내 눈앞의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까? 이러한 질문은 상황에 따라 포괄적이며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원이라는 말이 즐겁게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교육생인 여러분이 강의자인 저를 지원한다면, 그 지원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자세와 몰입하는 태도 등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내적 태도로 지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외국어라는 소통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구나, 하는 감정이 들고, 그래서 설명을 위해 다양한 예시를 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강의 전체를 준비해서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것에 여러분의 몰입이라는 지원이 더해져 수업에 풍부한 살을 덧붙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나열하듯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공개강연처럼 자료들을 제시하며 꼼꼼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 취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역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깨어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

했는지 살피고 새로운 예시를 찾아 다룬 설명을 시도합니다. [...] 그런데 인간학을 오늘처럼 풍성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때는 놀랍도록 적절한 예시로 수업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에 대하여 순간순간 “너의 존재는 무엇일까” 하고 질문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만날 때, 아이를 만날 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을 때, 동료들 만날 때, 그 질문은 늘 내재해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의 요구에 호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도덕성’입니다.

발도르프 교육학의 근간인 <일반인간학>이 인지학센터의 전집발간위원회에서 새로 번역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인 ‘정신적 차원의 교육’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성은 대개 자신을 향해 도덕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슈타이너가 말하는 도덕성이라 다릅니다. 타인인 상대방을 향한 나 자신의 호응을 말합니다. [...] <일반인간학>의 첫 번째 강연에 나오는 첫 문장에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 문장은 교육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은 전달하기에 수월하지



만, 발도르프 교육은 지적으로 편안하게 안주하는 상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은 의식영혼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즉 지적으로 안주하는 편안한 교육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성을 가진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정신적인 교육 활동의 주체인 여러분은 교사로서 만나는 그 아이가 가지는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이에게 교사는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너는 과연 누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지적 전달과 다른 놀라운 차원이며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겠다'라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 아닙니다. '너는 어떤 존재일까?' 하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이 배울 수 있다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영유아교사인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만 2살짜리가 미래 사회를 이끌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교사인 내가 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교육한다'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인 아이의 교육 안에 교사 자신이 투영되면 안 됩니다. 즉, 세상을 이끌어 갈 주인공은 청

소년들입니다. 이들이 사회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바로 전에 설명한 칠관 그림처럼, 정신적 차원의 그 무엇이 작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면, 또 느끼기 영역과 행동하기 영역에 작용하여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일의 청소년은 질적으로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은 거꾸로 행해집니다. 현대 교육의 포인트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강조하지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행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대학이라는 상아탑은 머리만 움직이는 사고에 치우쳐있었습니다. 지적 교육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적 교육에 치중하는 방식의 답습은 여전하지만, 그 부작용이 조금씩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에 뒤쳐진 규정을 고수하는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할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교수 자신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교육 상황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두고 부모 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회가 아이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정신세계를 탓할 수도 없

습니다. 결국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을 틀 속에 가두어 키워내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잘 펼치는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현재 실행되는 국가 지정 교육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은 정형화된 틀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교육입니다. [...]

발도르프 교육의 잣대는 정반대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합니다. 교육현장이 아이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발도르프 교육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작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작해야 미래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유능한 현장 교사로 올바른 교육을 실행하는것은 자신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입니다. 🌱

놀이의 발달(0-7세), 영아반과 유아반의 하루 리듬

마리 루이제 콤파니(통역 여상훈)
강의 발췌

관계형성, 또는 애착관계 형성이 라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존볼비John Bowlby는 애착, 관계형성, 애착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의 전형적인 모범사례와 형태, 양식을 연구한 인물입니다. 볼비는 어른들이 애착관계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아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지원하는지를 제시합니다. 현장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교사는 엄마와 아빠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며,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안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관찰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나 아이는 시간이 지나 새 환경에 익숙해지면 아이 혼자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아이는 노력을 기울여 낯선 세상을 탐색하고 조금씩 정복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계속해서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이 형성된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 곳을 '안전한 항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율, 자주, 독립이라는 부분에서 아이가 성공적

으로 세상을 체험하고 정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관계 맺기입니다. 세상 체험은 신뢰할 수 있는 애착형성이 단단할 때 풍부하게 일어납니다. 어른과 '함께 있기'에서 확실하고 안전한 애착형성을 이룬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채워졌고, 이것이 나중에 아이에게 학습의 바탕이 됩니다. [...] 아이는 낯선 공간에 놓이면, 그 공간에 대해서 새로이 적응해야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이며, 그 안에서 아이는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아이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기 초에 아이가 영유아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적응을 위해 부모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협력 없이 아이의 적응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적응 목표는 아이와 선생님, 선생님과 부모,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강력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삼각형을 이루는 주체들, 즉 아이, 선생님, 부모의 각 개체들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아이의 적응이 순조롭습니다. 또한 적응기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교사와 부모의 감정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교사가 우리 아이를 잘



받아주고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잘 대해줄까, 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이 적응기간 동안에 부모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협력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응목표는, 섬세한 배려를 통해 아이가 잘 적응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응기간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아이의 태도, 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실제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또 한 가지 적응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사의 동반자(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선생님을, 그리고 영유아 현장의 환경 전체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적응기간인 약 3~6주 동안 부모는 아이와 함께 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에 부모는 교사와 같은 공간에 머물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소통해서 등하원 시간이나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독일의 경우 대부분 이른바 ‘베를린 적응모델’을 사용합니다. 베를린 모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적응기간에 부모가 살내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약 3일 동안

은 부모가 아이의 전체 일과에 온전히 함께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고 선생님과 낯을 익히고 친구들을 익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아이는 공간에 익숙해지고 다른 아이와 놀잇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적응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부모님과 떨어지는 연습을 시작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가 빠가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돌봄을 받는지, 교사가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나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기관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면, 걱정이나 불안감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은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까지 중요한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주체가 어느 한쪽이 덜하고 더한 차이 없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나누어야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적응기간에 똑같은 동반자, 협력자로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현장 운영시설까지도 투명하게 부모에게 전달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신뢰는 커집니다.

[...] 놀이의 발달을 살펴봅니다. 아이가 집중하는 놀이의 대상물은 자신의 손입니다. 출생 후 3-4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는 자신의 손

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양손을 마주하고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3-4개월 이후에는 아이에게 발이 등장합니다. 이 기간에 자신의 손, 발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물을 발견하고 만지고 탐색하는 놀이를 ‘탐색 놀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이는 이 기간에 자기의 몸, 자기 주변 세상, 환경을 탐색하려 합니다. 아이가 똑바로 설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의 놀이는 일종의 ‘기능놀이’로 변합니다. 이 놀이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놀이를 하는 중에 새로운 놀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상징놀이’입니다. 아이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 즉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주는 것 등을 토대로 현실 체험을 놀이에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두 살 전에 시작된 상징놀이는 만 세 살을 지나면서 일종의 ‘상상놀이’로 바뀝니다. 만 3세부터 이루어지는 상상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아이가 생각,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을 가지려면 아이는 그 물건을 현실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즉 현실에서 물건을 경험해야 그 물건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 물건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상놀이는 만 3세 무렵부터 시작되어 만 5.5세 정도까

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새로운 차원의 놀이가 등장합니다. ‘역할놀이’와 ‘상상놀이’는 없는 것을 미리 생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놀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특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놀이들이 알맞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 세 살까지 충분히 신체적 차원의 놀이가 이루어져야 만 3세 이후 아이의 영혼, 즉 마음과 관계된 놀이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아이가 노는 장면을 봅니다. 놀이를 할 때 그 아이에게서 어떤 감각들이 활성화되는지 시각자료로 살펴봅시다. 아기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안 ‘균형감각’과 ‘운동감각’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구멍에다가 무엇을 끼우는데, 아주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고유운동감각’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행동을 해내는 그런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두드리면서 아이의 ‘청각각’이 활성화됩니다. 두드리보면서 아이는 각 물건이 내는 각기 다른 소리와 다른 기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촉각각’은 놀잇감을 만지고 손과 발로 기어 다니고 대상물을 넘어가고 몸을 땅에 대고 배밀이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사고감각’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가 터널 놀잇감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되풀이할 때입니다. 터널 하나를 통과하다가 다른 통

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통로로 나와 다시 한 번 터널 통과를 시도합니다. 아이는 자기 행동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고감각’의 바탕이 됩니다. 대상물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포르르 굴러가는 것도 보고, 기어가서 처음에 들어간 문과 옆에 있는 다른 문을 보고 움직일 때 ‘시각각’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가지 기초감각으로 ‘생명감각’이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나 소리, 노래하는 듯 내는 어떤 소리는 아이 자신이 편하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생명감각을 드러냅니다.[...]

자유놀이의 환경에서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공간입니다. 그 곳에 아이 발달에 맞는 적절한 놀잇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단계는 바로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두 개의 놀잇감을 가지고 그 놀이에 혼자 집중하여 놀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는 공동으로 하는 놀이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놀이를 하느냐는 것은 아이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자유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틀, 전체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준비된 공간이 있

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제조건으로 아이가 그 유아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편안하고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자유놀이의 근본이 되는 것은 규칙입니다. 자유놀이를 위한 규칙은 놀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규칙을 말합니다. 자유놀이는 아이가 얼마나 자기의 욕구에서 우리나라는 충동에 의해서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 수 있으나 그 목적을 돕니다. [...]

아이의 자신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를 통해 표출합니다. 이때 아이는 외부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 자기가 보는 동작 같은 것들을 놀이에 적용해 봅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놀이 상황에서 행위로 옮기는 것, 그것이 자유놀이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자유놀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어른들의 마음이 집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이의 놀이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



“창의성 발달을 돕는 놀잇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사를 위한 감각론, 놀이 발달을 조소로 체험하기

올리버 슈미트(통역 이소윤)
강의 발췌

조소수업은 직접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예술작업에서 우리는 하부위감각, 즉 4가지 기초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찰흙으로 작업합니다. 여러분들이 찰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이이다.' '나라는 아이를 마주보고 있는 '나'를 생각해 봅니다. 마주하는 나를 상대로 내가 작업합니다. 만 4세정도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성인이지만 아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합니

다. 내일, 모레,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커나간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세요. 마지막 날에는 젊은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술수업은 내적으로 깊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가 내적 작업을 이루려고요하게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함과 만남, 나 스스로와의 만남, 내가 나와 고요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나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두려움을 가집니다. 또는 내가 지각한 것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연습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과제로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 과정에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겨 작업에 집중해 주세요.

[...] 인지학에서 말하는, 감각을 교육한다, 훈련시켜나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면 인지학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내용을 알면 더 효과적으로 작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작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직접 하면서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즉 행위를 통해 먼저 느끼고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 손이 움직이니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느껴 보세요. 나와 함



계 작업하는 상대는 어떤 느낌으로 해 나가는 것일까? 상대는 나를 어떻게 느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작업의 감각을 내 안으로 자꾸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작업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다가오면, 마지막에는 감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 필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작업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12감각을 적었고 또 그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감각들을 느끼고 이해한 내용을 마지막 수업에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내용들은 인지학적 치유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어떤 아이가 특정부분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 치료사는 그 상태를 진단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나 치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교사를 위한 연습입니다. 이 조소작업은 구조를 만들어 가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아이 스스로가 조소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작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작업하면서 무엇인가를 쌓고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형성과정에서 내적 편안함과 힘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이처럼 느끼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우리는 감각을 날카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을 뽀족하고 예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나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각각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 이 많은 사람들이 방해 받지 않도록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 나의 경계와 타인의 경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감각의 측면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죠. [...] 만드는 행위 자체는 나의 특정한 신체적 부분을 향해 있지만,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 누군가도 나와 같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의 감각이 가진 또 하나의 측면은 상

부위감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조소 작업을 할 때는 결국 감각들이 통합체가 되어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아감각'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의 개별성을 알아주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두근거림에서 감동으로

김수희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10기 연수생)

후기

겨울 아카데미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난 여름 아카데미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가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지된 수업 내용도 읽어 보고, “나 자신을 만나고 충분히 느껴 보자.”는 목표도 세웠다.

오늘부터 겨울 아카데미 시작.

첫 수업은 <인간학>이었다. 지난 학기에 인간을 4구성체로 설명하는 수업을 들어 이제 겨우 익숙해졌는데, 이번에는 인간을 3구성요소로 설명하셨다. 매 시간 반쯤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또 멍해지는데, 이상하게 인간학 수업을 듣고 나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콤포니 교수님의 교수 방법론 시간에는 애착관계 형성과 놀이에 대해서 배웠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 여행을 갔다가 동행이 사라져서 혼자가 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셨다.

15년 전 내가 주재원 가족으로 중국에 갔을 당시 13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초등 저학년인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을 아파트 안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매일 울거나 길바닥에 나뒹구는 아이, 말을 하지 않는 아

이, 해질녘이 되면 배가 아픈 아이, 갑자기 난폭해지는 아이도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이런 경우들이 개인의 성향 문제이며 두 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때 아이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에 어른들이 너무 몰라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

조소 시간에는 좀 자유로웠다. 처음 만져 보는 찰흙이라 차갑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바닥을 만들거나 벽을 만들 때는 신나고 재미있었다. 천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 창문과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2층과 연결되는 통로도 만들어야 하고, 천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찰흙이 보기도 싫을 만큼 이 작업을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꼭 참고 짝꿍에게 찰흙 덩어리만 전달해 주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의 집을 서로 감상했다. 내 집만 볼 때는 괜찮았는데 남의 집과 비교해 보니 내 집이 작아 보이고 의미 없이 대충 만든 것 같아 속상했다. 그래도 집을 만들면서 믿을 만한 새 짝꿍이 생겨서 좋았다.

마지막 날의 “되돌아보기” 시간에는 감동적이고 가슴이 멍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쁨에 찬 교육생도 만났고, 많은 질문을 간직해 보겠다는 교육생도 있었다. 우

리말이 늘었다는 선생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고맙웠다.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기쁘다는 교육생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떠오른 ‘이번 교육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너는 누구니?” “어떻게 지내?” “내가 너를 어떻게 지원할까?”라는 것이었다. 내적 변화가 느껴졌다. 물론 지금까지 나는 늘 타인을 생각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내 식대로... 그리고 실망했다. 내 맘대로... 이젠 이 세 구절을 생각하며 조금 기다려야겠다. 다음 아카데미는 어떤 두근거림으로 맞이할지 기대된다. 🍷



“쓴살같이 지나간 1주일의 배움을 함께 돌아봅니다.”

또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을 기다리다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된 나를 기대하는 세 번째 발도르프 아카데미를 박찬과 기대감으로 마쳤습니다. 저에게 있어 발도르프 아카데미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살면서 때때로 풀어 내지 못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지내다가 그 답을 하나씩 발견하기에, 이 시간은 기다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미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 기대감 이상으로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에 대하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마르셀 교수님께서서는 일반 교육에서는 생각하기를 잘하기 위해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는 생각하기를 돌아봄으로써 살아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고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의 공간을 넓혀가다 보니 존재론적으로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질문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함께하는 아이들과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이 전부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존재를 인식

할 것인가를 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외침과 행동을 볼 때 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영혼으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희 선교원의 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발도르프 선교원인 저희 원으로 오게 된 아이는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그 아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안고 울기도 하고,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다려 주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며 발도르프 교육에 더 깊은 신뢰가 생겼고,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모든 강의 내용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반복되는 리듬으로 살아가는데,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요일을 알아가고 몸으로 계절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12감각 책을 읽으며 깊은 매력에 빠지는 것은 현장의 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과정에서 소개해 주시는 책들이

정선애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9기 연수생)

후기

제겐 교과서가 되어 매일 읽습니다. 발도르프 추천 도서들을 읽으며 이 책을 번역해 주신 교수님과 인지학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콤포니 교수님의 강의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적응”을 주제로 강의해주셨는데,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에도 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을 만나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에서 일주일 또는 이주일 만에 탐색을 끝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나름의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관련된 논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실제 사례와 적용을 통하여 발도르프 교육학에 입각해 만들어진 적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적응 프로그램이 하루속히 평가인증의 내용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녀를 맡는 기관들에 확고한 적용 원칙을 제시하여, 아이들이 충분한 적응 시간을 갖도록 기관과 부모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어, 이번 겨울 아카데미가 여덟 번째 학기였습니다.

총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간 2020. 1. 14(화) ~ 1. 20(월) 8:30-18:30 (55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일반인간학 13장~14장

교수방법론 I

안드레아스 크라코브(Andreas Krakow) / 통역 여상훈

기하학

발도르프학교의 종교수업

교수방법론 II

가브리엘라 괴체(Gabriela Ruth Elise Goetze) / 통역 오윤선

천문학

예술

이윤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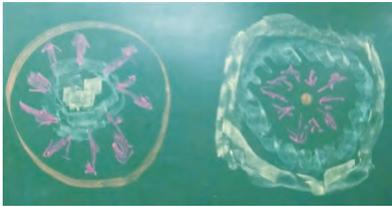
교사의 예술성을 높이는 음악



일반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 (통역 이정희)
강의 발췌

우리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슈타이너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는 인간을 그의 3구성요소와 4구성체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가운데 노란색이 “물질체”입니다. 그 주위의 녹색이 “에테르체”로서 생명을 부여합니다. 빨간 화살표인 “아스트랄체”에 의해 사람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은 “나”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황색의 가장 큰 원으로 “나”를 구성하여 조직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중앙에도 “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려 합니다. 이것은 에테르체와 물질체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나”가 중앙에 있는 상

태와 “나”가 밖에서 다른 구성체를 감싸는 상태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교차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왼쪽 그림의 빨간색 부분인 “아스트랄체”는 “나”에 의해 가 뒤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나”는 중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는 중심점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것을 내 안에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 오로지 안에 들어와 있어 주변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 일상에서 예를 들자면, 기차에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에테르체가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에테르체의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에테르체는 리듬과 온기가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아스트랄체는 이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밖에서 관심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아스트랄체는 늘 밖의 인상에 배고파합니다. 에테르체를 잘 관리하면 아스트랄체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

기심을 높입니다. 그래서 두 관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 아스트랄체를 붙잡아 두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가 안에만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안과 밖에 머무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아스트랄체와 교류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이 지닌 네 가지 종류의 구성체를 만납니다. [...]

지난 시간에 3구성, 즉 “정신-영혼-신체”를 다루었습니다. 영혼 영역에서 생각하기(Denken), 느끼기(Fühlen), 행동하기(Wollen)가 일어납니다. 정신 영역에서는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잠자는 상태로 세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신체는 내 고유의 것이지만 다른 것과 공유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의 어떤 요소들이 들



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 몸 안에도 있으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에도 존재합니다. 결국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는 우리 밖에 있지만 우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자연계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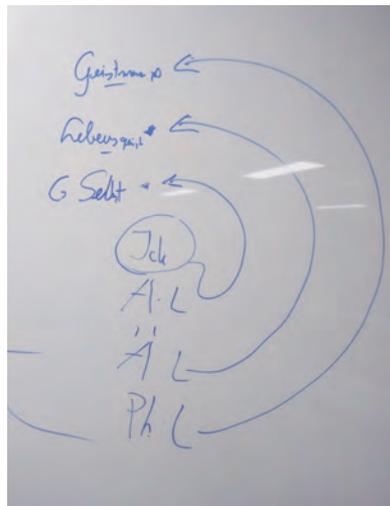
사람이란 존재는 우주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 지구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물병에 흙과 물을 넣어 흔들면 혼합됩니다. 이 혼합물을 한참 두면 흙은 점점 아래로 쌓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의 혼합체인 사람도 여러 가지 우주계의 힘들이 안에 들어가 흔들어진 후 잘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계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연계는 우리와 책임을 공유합니다.[...]

사람은 4구성체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면 사람이란 존재는 4구성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구성 부분은 정신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아직 지구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스트랄체도 더 오래 전에는 사람과 결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발달을 보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슈타이너는 앞으로 인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사람 모습으로 늘 존재하게 될 것이 아니라

고 설명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고차원의 나”도 함께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점은 4구성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아기는 에테르체를 담고 있는 물질체로 태어납니다. 아스트랄체와 나 부분은 감춰져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어야 아스트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 21세가 되어야 “나”가 온전히 탄생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나”를 잘 발달시켜야 합니다. “나”가 아스트랄체를 작업하여 다른 요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나”가 에테르체를 작업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냅니다.

“나”가 물질체와 작업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들의 명칭은 인도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차용해 왔습니다. 정신자아, 생명정신, 정신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도 이것을 말로 표



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요소들이 발전해 나가며, 인류는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4구성체에 “나”의 힘의 작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작업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작업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작업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하고 거대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구성체는 자연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나”와 연결된 정신세계에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 있게 살아야 합니다. 🌱

기하학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통역 여성훈)
강의 발체

발도르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하학 수업의 전개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이 주제와 관련된 시 한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조화가
모든 것 위에 균립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수정의 형상에도
술방울에도 들어있다.
달팽이 껍질의 나선형에도 있고
행성의 공전궤도에도 있다.
이렇게 어디에나 있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다.
하늘에는 측량사가 있어서
자신의 컴퍼스로 모든 것을 재었다는 사실을...”

-장 앙리 파브르

이 이야기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시세계와 연결된 미시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파브르가 관찰한 아름다움이란 조화입니다. 조화의 미가 바로 기하학 수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화의 아름다움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늘 지녀야 할 교사의 내적 자세입니다. 배움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채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기하학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바탕이기도 합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 기하학은 연속

성을 지닙니다. 저학년 1~3학년에는 ‘포르멘’(형태 그리기)수업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개념적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작업은 몸으로 합니다. 무엇을 그린다기 보다는 몸으로 만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학년부터 비로소 비교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동물학에서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5학년이 되면 맨손기하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콤파스와 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 방법은 슈타이너가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맨손기하학을 다루지 않는 교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 교수법의 선택은 교사의 몫입니다. 6~8학년이 되면 증명 가능한 정밀한 기하학을 다룹니다. 정리하면 만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기하학은 몸의 활동입니다. 도형을 그리는 작업에서는 네 가지 하부위각각을 사용합니다. 즉 촉각각, 생명각각, 균형각각, 고유운동각각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활동에서 네 가지 감각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합니다. 1~4학년 아이들



은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중력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몸을 움직이게 하세요.

다음 소개하는 이야기는 제가 독일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답임을 맡았던 학급은 36명이었습니다. 1학년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칠판에 위에서 아래로 곧게 선 하나를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첫 번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바로 ‘나’(독일어 ‘Ich’)라는 낱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Ich’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실 안에 36명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강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방법이 교육에서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아이 자신의 ‘나’가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36명의 아이들에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칠판에 자기 자신의 곧은 선을 하나씩 그리게 합니다. 36명의 아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곧은 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어떤 아이는 칠판 구석에 흐리게 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도 각자의 기질이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담임교사는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어제 그린 곧은 선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칠판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미리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려보게 합니다. 물론 여러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림입니다. 수업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칠판을 보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누워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누워있는 선에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서 있는 상태와 누운 상태를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인간학적으로 보면, 1학년 아이들의 세계는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없는 하나의 세상을 나타내는 도형으로 원이 있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원을 그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은 머리에서 개념을 만들고 그것이 몸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몸을 통해 행동하고 머리로 개념을 만듭니다 [...] 



천문학

가브리엘라 괴체(통역 오윤선)

강의 발췌

천문학은 오래 전 고대부터 시작 된 것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천문학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루시퍼적인 힘을 지니면서 동시에 지구의 이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과학입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 천문학 에포크 수업은 6학년 혹은 7학년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은 하늘과 관련된 경험을 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주와 왕자가 하늘 빛, 달빛, 별빛의 힘을 담고 있는 씨앗을 가진다는 전래동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에게 들려주는 도덕적 의미를 담은 생활동화에서도 하늘에 있는 별들의 대화나 태양과 땅의 크리스탈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3학년이 되면 농사짓기 에포크를 통해 직접적으로 태양을 경험하며 하늘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4학년에서 다루는 동네학 에포크 수업에서 학생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게 되고, 이런 지리적인 이해는 4방위로 확장됩니다. 더 멀리 천정

과 천저 등을 배우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5학년에서는 지리학을 통해 하늘과 가까운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 나갑니다. [...] 6학년의 천문학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이 된 학생들은 5학년 때와는 전혀 다른 영혼의 제스처를 보입니다. 6학년의 아이들은 로마인들처럼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반감의 제스처를 하고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태도 또한 확연하게 다르게 변화합니다. 남학생들은 밖에 있는 감각의 자극을 찾아서 나서고, 여학생들은 내면에 있는 자신의 자극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만 12세 무렵에는 호흡의 성숙기를 맞이합니다. 이전에는 잠을 자는 고풍한 시간에만 호흡과 맥박의 수가 1:4 비율을 보였던 것이, 이 시기가 되면 낮의 활동 시간에도 1:4의 비율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율과도 같습니다. (하루 25920번의 호흡 vs. 춘분점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 25920년) 이 시기의 아동 발

달에 대해 루돌프 슈타이너는 1922년 옥스퍼드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소식지 슈타이너 어록 참고]

호흡의 안정과 함께 6학년 학생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깨어납니다. 이같은 내적 발달에 따라 물리, 광물학, 로마사, 천문학 등 새로운 에포크 과목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의식적인 인과관계 사고가 가능하므로 천문학 에포크는 하늘에서 이뤄지는 현상들에 대해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작용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6학년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 과정을 좇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천문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을 통해 6학년 학생들은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관찰하며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주로 북극과 적도를 오가는 별자리의 이동과 태양의 움직임을 배웁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은 몸으로 시연해 보이며 설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지구 위로 확실하게 내려오도록 장단, 장단 리듬의 시를 낭송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포크가 끝나는 날 학급 여행을 계획하여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밤하늘의 별이 순차적으로 떠오르고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학년의 주요 테마는 ‘세상이 발견된다’입니다. 이 시기 학생들에게는 관찰의 시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6학년 때 활동으로 함께 익혔던 것들이 이제 사고 활동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사고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7학년에서는 주로 행성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배웁니다. 8학년에서는 피클러의 법칙 중에서 춘분점과 추분점, 그리고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천문학을 독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지리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분야와 연계하여 우리의 공간과 시간이 점점 확장되도록 수업합니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가 고등과정 9학년이 되면, 1학년에서 8학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전문교사와 함께 다른 관점으로 배웁니다. 9학년의 교육적 테마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기의 학생들은 사람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지는 않지

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10학년 때는 더 깊이 들어가 바다의 밀물과 썰물, 바람 등을 천문학과 함께 다룹니다. 회오리의 나선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한 바람의 방향이 회오리 모양을 만듭니다. 11학년에서는 천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별 시간과 태양 시간 등을 다룹니다. 오늘날 현대 천문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에 대한 질문들을 11학년 때 다룹니다. 동시에 태아의 발생학을 함께 다룹니다. 발생학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슈타이너는 아주 강하고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12학년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오이리트미 과목에서도 12궁 별자리를 다룹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과목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새로이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본 지구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깨지기 쉬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배움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깨지기 쉬운 작은 지구를 위해 커다란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 

6학년을 위한 시

어느새 밤의 어둠이 지상에 내려,
별들은 성스러이 어깨를 맞대고
큰 등불, 작은 불티로
멀리서, 가까이서 반짝인다.
이 호수에 비쳐 빛나고
저 맑은 밤하늘에서 반짝인다.
한없이 깊은 휴식을 약속하며
달은 휘영청 빛난다.

-괴테 <파우스트> 2부 1막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7학년과 상급학년을 위한 시

<별이 빛나는 밤>

태양별 아래 싸우는 지상의 아들,
마차의 말들에 가열차게 채찍을 가하며,
먼 목적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느라
먼지에 둘러싸인 자,
그가 어찌 별이 있는지 알겠는가?
하지만 말들이 지치고 길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빛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성스러운 법칙들이 눈에 들어온다.
싸움의 함성은 잦아들고, 날이 샌다.

-F. 마이어



아이 덕분에 내가 배우는 즐거움

정다운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후기

매년 여름, 겨울 1주일씩 이루어지는 학교 교사 양성과정 교육은 몇 년 전부터 나의 연간계획표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었다. 2016년 여름에 시작해서 중간에 한 학기를 쉬었지만 어느새 7학기째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 모든 일의 첫 시작이 그러하듯, 8학기 4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반감이 먼저 생기는 일이었다. 그래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궁금했고, 혹시 수업시간에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보충해줄 수 있을까, 하는 사심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첫해부터 아이를 위한 것보다는 내가 배워가는 것이 즐거운 교육이 되어버렸다. 가장 큰 이득은 아이와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아이가 수업시간에 배우고 하는 말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매번 교육을 마치는 날 가지는 돌아보기 시간은 학기가 지날수록 구체화되었고, 마치 원래 그렇게 되려고 준비된 것처럼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2020년 학교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표를 보았을 때, 기하학과 천문학이 방법론 수업으로 잡혀있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올해 7학년이 되는 아들이 작년에 기하학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게, “엄마, 기하학 해봤어?”라고 물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에 가면 엄마도 배울 거라고 하니, “그럼 수업 받고 와서 이야기해 줘.”라

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가 6학년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달 관찰도 하고 천문대로 1박 2일 별 관측 여행도 너무 재미있게 다녀온 걸 알기에, 천문학 수업도 더욱 기대되었다.

명불허전 입학 첫날부터 시작되는 형태 그리기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에포크 수업의 내용으로 발전하여 맨손기하가 되고 정밀기하가 되는 과정. 그 8년의 여정을 크라코브 선생님의 열정적이면서도 진실하고 친절한 안내로 함께 걸었다. 때론 학생이 된 느낌으로 경험해보고, 때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을 만났다.

천문학은 막연히 별자리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지리학과 연관되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곳의 하늘과 그 하늘의 태양, 달, 행성, 항성들을 생각해보는 수업이었으며, 달에 따른 밀물, 썰물, 바람에 대한 기후학과 지구과학을 포함하는 방대한 수업이었다.

발도르프학교를 졸업해서 교사가 된 가브리엘라 선생님이 반짝이는 눈으로 학교 다닐 때 외웠다는 천문학 분위기의 시들을 암송해 주셨을 때는 작고 단단한 어린 가브리엘라가 보이는 듯 했다.

인간학 수업을 담당하셨던 마르셀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머리 아프면 안 되고 즐거워서 가슴을 울려야 한다.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아름다움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교육자로 아이들을 만날 때는,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떻게 지내는 거야? 이곳에서 너의 과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무엇인가 제대로 알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아이를 관찰할 때도 물질적 관점에서 머리 큰 아이와 머리 작은 아이로서, 에테르적 관점에서 담즙, 경혈, 점액, 우울의 기질로서, 아스트랄적 관점에서 일곱 가지 행성의 특성에 따라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마르셀 선생님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식으로 알 수 있는 정신세계를 여행했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나와 아이들과 주변 성인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7학기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굳은 땅에 물이 스며들 듯 서서히 나에게 인지학적 분위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또한 내 깊은 곳의 그 불변의 존재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집중해 본다. 🌈



반복을 통한 내면화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어 분주하고 활기차게 보내야 하건만,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잔뜩 움츠린 채 보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1월에 있었던 연수를 돌이켜보자니 아주 오래 전 일을 추억하는 기분이다. 2기의 마지막 세미나였다. 1학기 때는 8학기를 언제 다 마치나 싶었는데, 긴 여정의 끝이라니 기쁘고 후련하다. 이 과정만 마치면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할 줄 알았지만,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초조하기만 하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인지학, 천문학, 기하학, 종교수업, 합창이었다.

인지학 강의를 담당하셨던 마르셀 교수님의 컨디션 난조로 첫 이틀 수업을 하실 수가 없었다. 대신 우리는 1, 2학기에나 하던,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는 아주 희귀한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기운을 차리신 마르셀 교수님의 인지학 강의는 실은 3학기 인지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에 감탄을 하며 열심히 필기도 했던데, 예전에 강의하신 내용인데... 언제 13, 14강으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중을 잘 하지 못했다. 중간중간 강의장을 쓱 둘러보았는데 어쩐지 나 말고는 다들 잘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 말씀씩 통역이 될 때마다 아! 하는 감탄의 소리도 들려왔다.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또 다르고, 깨달음이 있다고 삶 속에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고작 한 번 들었던 내용이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니! 연수가 끝나기 전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천문학 수업은 꿈꾸는 시간이었다. 시공간을 이동해서 북극, 남극, 적도, 그리고 우주에 가서 태양과 달, 별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들이 고리 모양으로 돌면서 움직이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런 생생한 느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로서 고민이 깊어졌다.

기하학 수업에서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것과 원을 그려 도는 것은 같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실험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냥 앉아서 추측하는 게 아니라, 활동과 관찰을 통해 사고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단순한 룰 같지만 수업에서 아이들이 아하!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려면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

짧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종교수업에서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씀은 이랬다. “정신세계에서 종교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이들을 이끄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나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었을까.

이연경
(안양발도르프학교 교사)

후기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과연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담임교사가 되는데는 아주 큰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하겠다. 또한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역할이다.

2기 담임교사 양성과정 이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한다. 처음 마음을 늘 간직하는 것. 그때에 가졌던 설렘과 호기심, 경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 진지하게 발도르프 교육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담임교사 양성과정을 마치면서 나 자신에게 주문하는 것들이다.

4년간 강의를 해주신 여러 독일 교수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교육 현장과 삶 속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해 오신 발자취를 존경하게 되었다. 언젠가 연수에서 다시 뵈는 때도 담임교사로서 현장의 고민들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면 좋겠다. 🍀



발도르프학교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수공예는 전 학년을 걸쳐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발도르프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발도르프 수공예 교사로서 기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인지학적 아동 발달에 기반한 수공예 기술 뿐 아니라 창의적 예술 감각을 겸비할 수 있는 수공예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해 7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학교의 수공예 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0년 겨울 아카데미는 1기의 첫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20. 1. 9(목)~1. 13(월) 8:30-18:3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서울 대방동) 세미나실 2

수공예(이론, 실기)

마그리트 뵘글리 뢰쉬케(Margrit Bögli-Röschke)/ 통역 김하진

아동발달에 따른 수공예 작업의 의미

1~3학년 대비늘과 코바늘의 기초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 / 통역 이정희

수공예를 위한 인간학

예술

손석심

색채 경험



수공예의 의미와 교사의 자세

마그리트 뵘글리 뢰쉬케 (통역 김하진)
강의 발췌

“나에게 뭔가를 설명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나에게 뭔가를 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노자

유아 현장에서는 모든 것은 주로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학령기에 들어 서면 놀이에서 작업, 즉 일 쪽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작업은 미적인 ‘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슈타이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황금 지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학에서는 아이의 발달을 7년 주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만 7세까지 아이들은 ‘세상은 좋다’고 느낍니다. 만 7~14세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만 14~21세는 세상이 참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대하는 두 번째의 주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름답게 다가오도록, 교사는 무엇보다 미적인 것, 아름다움을 우위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미적인 것에 대한 비중이 크지만 상급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 세상

의 진실됨이 중요합니다. [...] 우리가 잘 움직이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유연한 사고와 직결됩니다.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생각 역시 유연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인 의지란 나 스스로 과제를 세우고 그것을 해내는 것, 개념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공예 활동에는 행위의 즐거움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각적인 조화, 자연스러움을 말하나요? 색채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나요? 어떤 색깔이 아름다울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대답을 가져다 줍니다. [...]

수공예 수업은 아이들의 미적 감각을 키우면서 세련미를 일깨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수공예 작업들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수공예 교사는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수공예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수작업으로 예술 작업을 하게 만들고, 둘째로는 자신들의 예술적 기원을 알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공

예 수업은 독일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한국 문화권의 환경에서 수공예 수업 소재를 발견하고 선택하여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할 때 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수공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서든지 1학년 아이들은 수공예 선생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양손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재료를 다룰 수 있고, 대부분 수공예 교실에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공예 교실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뜨개질을 하면 사고하는 이해력과 다양한 재료를 통해 정서적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수공예 수업에서 활용되므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수공예를 좋아하는 겁니다. [...]

수공예 교사로서 지녀야 할 내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1. 무엇보다 우리의 작업을 사랑해야 합니다. 2. 수업하는 교육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

다. 3.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모든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사랑이 담긴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6. 아이들이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공예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적 자세는 교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스스로 연마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자기교육'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사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고 수업도 예술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공예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자신의 수업을 위해 모든 과정을 눈감고도 할 정도로 숙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업을 예술적인 작업으로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작품 속의 예술적인 도형을 잘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복장을 입는지도 중요 합니다. 수업 진행은 언제나 들숨과 날숨의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공예 역시 수업 전개에서 리듬 부분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시작을 위한 시를 암송하고, 또한 대바늘뜨기나 코바늘뜨기 자체가 리듬적인 움직임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리듬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감각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교실 분위기가 어떤

지 느낍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이 감동받고 감탄하도록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는 아주 불편하고 부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래야 상을 담은 미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코바늘뜨기와 대바늘뜨기의 교육적 차이점은 의지를 깨우는 것, 그리고 그 의지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장소에 가서 실을 가져와서 행위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

사슬뜨기와 짧은뜨기는 균형을 잡아 작업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오히려 아이들을 경직시키므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로 사슬뜨기로 제작하는 공 주머니는 경혈질적인 작업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사슬뜨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짧은뜨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슬코를 줄이고 짧은뜨기를 조금 많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짧은뜨기는 깨어나게 하는 육화된 작업에 더 가까우니 물통주머니가 경혈질의 아이에게는 더 좋은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만드는 모든 작품은 속과 겉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담아내는 적절한 기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되, 생활과 연결된 작품의 기능적

의미가 예술적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품의 의미가 색으로 드러나고, 색이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작품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색으로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색을 통해 열린 부분과 닫힌 부분이 구별됩니다. 수공예 수업은 색으로만 작업하지 않고 그 색을 통해 사고하도록 자극합니다. 예를 들면 가방이 담고 있는 무게는 어두운 색으로 표현합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그 사물의 장식으로만 이용하여 그림을 수놓는 데만 사용한다면 색채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림은 색채를 통해 그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놓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슈타이너는 수공예 작품에 색깔을 주는 것은 그 사물의 목적에 맞아야 하고 색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3학년 수공예 수업을 위한 시

신은 나에게

넓은 땅과 경작할 힘을 주셨네.

이제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에 달려있네.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질지

아니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지.

-작자 미상-

수공예 전문교사 양성과정, 첫 걸음마를 떼다

김하진
(부천 자유발도르프학교 수공예 교사/
인지학센터 연구원)

강사 후기

2011년 가을, 첫 발도르프학교와 터를 공유하며 세워진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에 첫 번째 수공예 교사 집중 준비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교사 과정을 마친 저는 처음 그 과정에 참여한 6명의 학생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모 솜 빨기부터 시작하여 실자기, 뜨개질, 코바느질, 수놓기, 베짜기, 바구니짜기, 책 만들기 등등 발도르프 전 학년 교과과정에 담긴 방대하고 다채로운 수공예 분야를 숨가쁘게 배우고 익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후 2017년 부천 자유발도르프학교의 수공예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 해 발도르프학교연합 연수를 앞두고, 배우고 싶으신 게 있다는 한 수공예 선생님의 요청에 얼떨결에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여름, 학교연합 연수에서 작품에 색채를 담아내는 도입 방법과 색채를 아이들과 예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업을 나눴는데, 현장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동기와 격려가 되어, 제가 현지에서 배워온 것이 치열한 현장에 계신 분들께 도움

이 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나눠 드려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조심스럽게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지학센터 담임교사 양성 과정에 초대되어 오신 모니카 뒤르선 생님의 수공예 세미나에서 저는 통역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띤 반응을 통해 현장의 뜨거운 목마름을 알게 된 센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연계하여 한국에 ‘수공예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였고, 저에게 담당을 맡아주길 제안했습니다.

한 학기의 망설임 끝에 결국 2019년 가을부터 인지학센터 2층에 자리잡은 공방에서 유아 수공예 과정 담당으로 계신 한은숙 선생님과 매주 월요일마다 마주앉아 학교 수공예 교사 양성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음을 모았던 이 양성과정의 목표는 ‘예술성’과 ‘인지학적 바탕 지식’을 지닌, 현장에 꼭 필요한 실력 있는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밟아가야 했던 저희의 과제는 첫째, 이 과정을 이끌어주실 좋은 교수님을 찾는 것, 둘째, 함께할 연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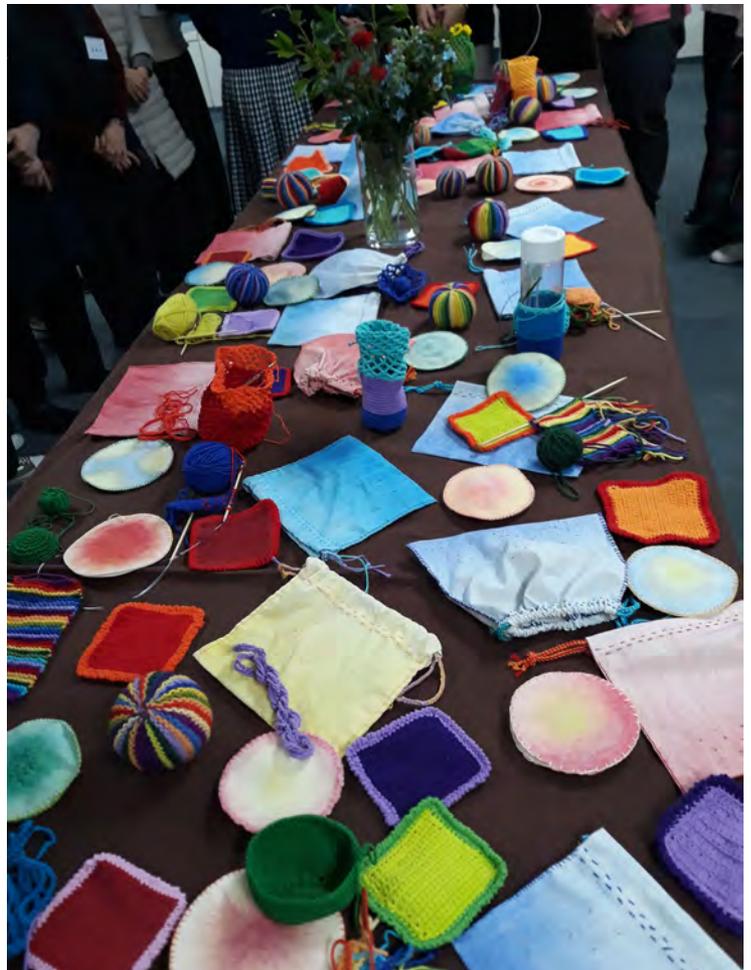
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수공예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맡고 계신 이자벨 렌쇼 교수님께서서는 베짜기 장인으로서 장애통합학교에서 주로 청소년들에게 수공예를 가르쳐온 자신보다 저희를 위해 1~8학년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저희에게 더 적합한 교수님을 찾아보시겠다고 제안하셨고, 저희는 여러 달에 걸친 애타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그리트 뢰글리 뢰쉬케 선생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그리트 선생님은 스스로 발도르프학교 학생이자 학부모이셨고, 다년간 발도르프학교에서 전 학년 수공예 교사로, 또 카셀과 프랑크푸르트 교사 세미나에서 수공예 교수로 일해오신 그야말로 베테랑이셨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서는 타이완을 왕래하며 수공예 세미나를 주관하고 계셔서 동양문화권에 대한 경험과 이해까지 지니고 계신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사전 OT와 전화 인터뷰를 거쳐 드디어 2020년 1월, 5일간 수공예 전문교사 양성과정의 첫 학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그리트 교수님께서 가장 오래된 버전의 발도르프 교과

과정 서적 원문을 통해서 수공예 교과 과정의 중심 취지가 무엇인지를 재점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색에 대한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작업을 알려주시면서, 저희가 먼저 시도해 보고 느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심 취지 안에서, 100년간 이어져온 발도르프 수공예의 전형을 답습하거나 독일 토양에서 생겨난 수업 내용을 내적 공감 없이 기계적으로 따르지 말고 '이 땅'에서 '동시대인'으로 살고자 하는 아이들의 필요를 읽어서 '문화'와 '시대'에 맞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며 고안해내는 도전을 하라고 지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큰 도전과 가르침으로 남은 것은, 연수기간 내내 교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학생에 대한 '깨어있는 관찰'을 통해 수업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재창조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되, 끊임없이 깨어있고 열려있을 것', 이것이 첫 연수를 통해 저에게 깊이 각인된 발도르프 수공예 교사로서의 기본자세였습니다.

이제 겨우 첫 걸음마를 댄 학교 수공예 전문교사 양성과정이지만, 제 마음 속의 이상은 더욱 높아지고 열정 역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연수에 반짝이는 눈과 부지런한 손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열정으로 함께 하셨던 40명의 예비 수공예 선생님들

께서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 마침내 현장에서 예술성을 발현시켜주는 수공예 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수공예 교사로 서기까지 잘 준비해 가시기를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에 우리 솜씨가 늘었습니다!”
초등 1-3학년 수업 과정

사과의 전환점을 맞이한 계기

수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교육 방법을 위해 발도르프를 접하게 되어 교육과 인간의 본질 및 관계를 어설프게나마 알아가는 동안, 내가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수공예 수업이 시작된다는 설렘으로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방학기간과 일정이 겹쳐 아이들을 두고 새벽부터 집을 나와 저녁시간까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역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지학 수업은 그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의 경험담과 지식으로 쉽게 설명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와 줄릴 틈이 없었습니다. 수공예 수업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 경험과 새로운 도전 방식으로 수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인지 경험과 새로움에 도전하는 신선한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양모를 사용하고 요정을 만들

고 네모 모양을 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는 수공예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수공예 수업의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시간이었어서, 다음 학기도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이 많은 걸 알려주려 하시는데 마음에 비해 통역 수업의 한계로 진행이 지체되었고, 오후로 갈수록 모두 지쳐가면서 실습과정 습득이 잘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많은 걸 듣고 배우고 돌아가려는 마음은 제 욕심이겠죠? 하지만 모두들 고생하신 줄 당연히 알아요. 애쓰셨습니다!

아이를 발도르프학교에 보내는 저는 부모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

안선혜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교사 양성과정
1기 연수생)

후기

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오래전부터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했고 지금도 조금이나마 학교와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성장 환경을 만들고 교육에 참여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함께 배우며 성장해가기를 기대합니다. 🍀



위 - 독일 발도르프학교 1학년 학생들 작품
아래 - 저학년을 위한 수공예 자료 소개(누에고치)

오이리트미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장예술로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eu-)+리듬(rythmic)'을 의미하며 결국 '아름다운 동작'을 뜻합니다.

오이리트미는 발도르프학교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고, 동선의 움직임이 공동으로 실현하며 공간 감각과 사회성을 키웁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메움과 발도르프 교육대학의 협력으로 2017년 서울오이리트미메움예술원을 개관했습니다.

현재 예술원은 오이리트미스트 양성과정, 워크숍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총5년 간의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오이리트미 석사과정 입학 자격, 치유오이리트미과정 입학 자격과 오이리트미 앙상블 입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간 2019년 12월28일(토)~2020년 1월20일(월)/09:00-18:10

장소 서울오이리트미메움예술원(6층)

참여 1기(4학년 재학생 13명), 2기(2학년 재학생 3명)

책임 교수진

음악오이리트미, 언어오이리트미

(총 책임교수)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음악오이리트미

임동원

음악, 한국어 오이리트미

한미경

교육 오이리트미

신승혜

음악이론

이윤옥

학생지도, 예술작업

정나란

특강

천문학

가브리엘라 괴체

공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공간으로부터

천경자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후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가졌던 의문들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불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내 긴 여정의 의문들은 등지처럼 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오이리트미 움직임은 다시 나를 이 시간으로 데려 갔다.

레버 선생님의 “ich” 동작에서 난 깊은 울림을 받았다.

자아가 어디로 가는지…

“공간으로 들어가기보다 공간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겨울 연수에서 나에게 울림을 남긴 레버 교수님의 말씀이다.

난, 계속 탐구했다.

공간 안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작년, 딸과 남편에 대한 기억이 없음을 알았다. 애써 기억해내야 함을 알았다.

나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은 삶과 죽음에 대한 메아리가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하늘과 땅이 내 몸같이 느껴진다.

요즈음 정성껏 밥을 짓고 있다.

가족과 세상사람 누구에게라도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을 드리고 싶다.

교육 오이리트미 시간에 겨울을 생각하며 적었던 시귀가 떠오른다.

하얀 눈이 내리면 그 소리 들려오네

하얀 눈이 쌓이면 내 마음 고요해지네

하얀 집에 오렌지 빛이 찾아오면

그 향기 영원하여라. 🍊



“3주간의 결실을 선보입니다. 독일 학생들보다 열정과 의지가 월등합니다!”

집중코스

34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37 인지학과 예술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발도르프교육을 펼치는 여러 현장에서 교육의 문제 영역을 실제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인지학적 인간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상담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발도르프교육 전문과정을 졸업한 현장 전문가를 위한 심화코스로, 슈타이너의 교육론을 기반으로 현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정입니다.

기간 2020. 1. 7(화) ~ 1. 9(목) / 8:50-17:50 (55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NGO실

부모교육 이론

마르셀 드 레이브(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아동 이해를 위한 인지학적 접근 방법들

(카르마, 자기 연마, 정신 세계에 대한 이해)

부모상담 방법론

마리 루이제 콤파니(Marie-Luise Comani) / 통역 여상훈

대화 기법, 상담을 위한 지각 능력의 연마

상담과 예술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 / 통역 손석심

상담의 실제 능력을 높이는 조소 작업

“만남과 대화”를 주제로 예술 작업이 이루어진다.

음악

이윤옥

영유아기 음악교육: 오음계를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기와 다르게 나는 맷돌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다.

말하자면 믹서기인 이 맷돌은(그림1) 가운데에 난 구멍에 콩을 넣고 손잡이인 어치구니를 돌리면 돌과 돌 사이에서 콩물이 주르륵 나온다. 이 구멍에 뭔가를 넣지 않고 계속 어치구니를 돌리면 돌가루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지난 8년 동안 나를 포함하여 자연 학교 교사들을 인지학센터에 꼭 가게 했다. 교사, 원장 경력이 20년, 30년이라도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어치구니만 돌리면 빈 맷돌처럼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지학센터의 과정 하나하나가 교사로 잘 성장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었음을 생각하며, 이 지면을 빌어 교사 교육에 매진해 온 인지학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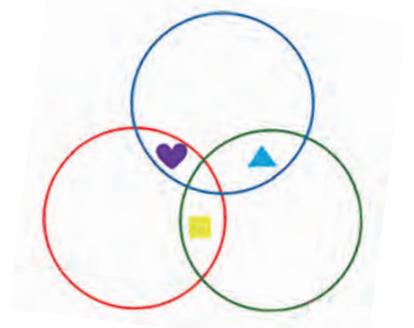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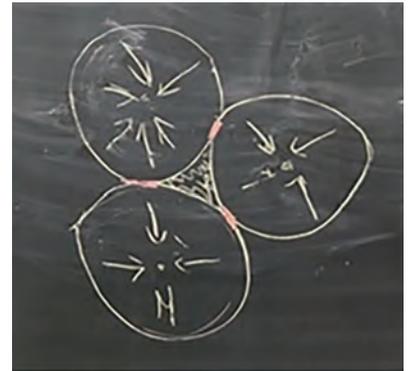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과정 8기를 졸업하고 부모상담사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나는 원장으로서 교사와 부모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내는데, 이번 학기가 특별히 더 울림이 있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부모님께 부모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올라올 때가 있다. 이를테면 “휴대폰이나 미디어가 위험하니 집에서 자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림 3의 부모가 빨간 원이라면, 교사인 파란 원이 부모의 공간을 넘어서서 보라색 하트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저 보라색 하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르셀 교수님께서 그림 2를 그리시면서, “내 영역 밖의 것을 말하지 말라. 갈등이 생기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각 원마다 포개이지 않고 아주 살짝 접해 있는 분홍색 점점에 “긍정적 요소”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셨다. “외부에서 보면 반감이 일어난다. 서로 자기 영

백승미
(울산 자연어린이집 원장)
후기

역 안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저 작은 만남은 무척 섬세한 부분이다.” 하고 강의에서 언급해 주셨다.



원장의 입장에서 부모님들께 바른 방향이라 생각되어 말하고 싶어지는 유혹, 그리고 교사들에게 때때로 그림 3처럼 포개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포개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영역 안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말을 줄이고, 섬세하게 만나는 분홍색 접점을 긍정적으로 연결하도록 기억하려 힘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이번 조소 수업과 같은 예술 수업은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창의적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수업 중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옆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 사람이 다시 변형하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옆 사람이 내 작품을 망가뜨려 다른 것으로 만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왔다. 자기에게 머물러 있던 고집스런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을 조금씩 수용하게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예술은 유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아이들과 수업으로 하는 예술이 아닌, 교사 자신을 위한 예술 작업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교사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이들의 작품에 교사가 “잘했다!” 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아름답다!” 하고 말해 주고, 새로운 모델을 보이거나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빨강이 많구나, 파랑을 넓게 칠했네.” 하는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물론 정답은 없다.

교수한테 들은 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능동적인 교사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지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성숙시켜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조언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콤포니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여덟 장의 사진을 전체가 공유하지 않은 채 한 장씩 팀끼리만 공유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한 뒤 발표하는 경험을 했다.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미지를 머리 속으로 그려본 뒤에 마지막에 전체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나무 하나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같은 나무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묘사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직각했다. 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일치된 단 하나의 견해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감정이나 상대와 나와 관계 배제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인간적인 온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상담할 때는 많은 정보가 오고 간다. 이때 콤포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의 네 가지 측면을 인지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되었다. 1) 발신자와의 관계. 2) 감정, 정서. 3) 내용. 4) 발신자의 의도 등이 그것이다. 이 구조가 의사소통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방법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긴다. 또한 표현 속에 담긴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공부하고 내면화한다면, 부모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소통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나는 한 부모로부터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평소라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섭섭하고 정신 없는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았을 터인데, 나의 작은 변화는 그 와중에도 정보의 네 가지 요소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팩트를 둘러싼

- 1) 부모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부모가 느끼는 교사와의 관계
- 2) 교사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교사가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
- 3) 원장으로서 나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부모, 교사와의 관계

물론 여전히 내면화를 하지 못해 미숙하게 처리하는 나를 보면서 나에게 대해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조차 성찰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이다.

이 부모상담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히 내면화 작업을 해가면서 성실하게 반응한다면 원장의 역할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020년 여름학기 과정도 기대된다. 

인지학과 예술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적 관점으로 교육, 인간, 사회 등 현대의 양상을 이해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집중 코스입니다.

기간 2020. 1. 16(목) ~ 1. 18(토) / 8:50-17:50 (21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

인지학 I

마르셀 드 레이브(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예술에서 '나'의 역할

인지학 II

안드레아스 크라코브(Andreas Krakow) / 통역 여상훈

괴테 "파우스트" 작품의 인지학적 해석

인지학 III

가브리엘라 괴체(Gabriela Ruth Elise Goetze) / 통역 이정희

인류의 변천사

예술

안미순

소묘 - 빛과 그림자



“파우스트, 인간, 우리는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공통의 끈이 있다”

권영완
(영천 금호어린이집 원장)
후기

이른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방 모퉁이에 앉아 강의를 생각하며 두 손을 오므렸다 폈다 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다른 굽기와 길이, 마디를 가진 5개가 길이 난 안쪽 바닥으로 모였다. 그것의 등에는 4개의 선들이 길목에서 만나고, 여기서는 몇 개로 만났는지 만져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다시 2개로 길을 떠나 굽혀지는 곳에서 하나로 응축된 후 언덕 위로 올라와 몸이 합체되었다. 이 복잡하고 신비한 좌우 두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낯설었다.

“정신은 사지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 명제가 떠올랐다.

마르셀 선생님은 칠판에 구를 이고 있는 그림달과 그 달의 몸통에서 반대편으로 뻗어 나온 위 직선 두 개, 아래 직선 두 개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주 정신의 광선이 줄어들고 줄어들어 손과 발을 통해 들어온다고 얘기하셨다. 정신이 머리를 통해 올 것 같은 평소의 나의 관념은 크게 깨졌다.

인지학 강의가 늘 그렇듯이 교수님들은 협강이라는 강의 예술을 하신다. 크라코브 선생님의 “파우스트” 열강에서 나는 인식과 실천에 관해 느낌 영역의 변화를 경험했다. “파우스트, 인간, 우리는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공통의 끈이 있다.”고 하시면서, 괴테 말년에 쓴 서막 전 현사를 낭독

해 주셨다.

“너희, 이 흔들리는 존재들이,
너희들이 다시 오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멀리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사라지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 같다.”

괴테는 영적인 것이 현실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고전적인 질문 - 신은 왜 악을 허용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안미순 선생님의 ‘빛과 그림자’ 주제 드로잉 작업을 통해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림자 이면에 빛이 있다. 빛의 밝기를 가늠하는 것은 어둠을 통해서였다. 그림들을 모아 함께 보았는데, 각각의 빛과 어둠의 크기는 달랐지만, 어떤 그림이라도 빛만, 혹은 그림자만 있지 않았다.

<파우스트> 1부에서는 메피스토가 루시퍼의 모습으로 파우스트에게 다가온다. 파우스트로 하여금 그레첸을 갈구하게 했듯이, 루시퍼는 느낌을 건드려 인간의 욕망, 열망에 불을 붙인다.

2부에서 메피스토는 아리만의 모습을 갖는다. 그것은 에테르체에 끼어들어 암흑과 죽음의 공포를 갖게 한다. 메피스토가 궁정에서 재정 파탄에 빠진 황제에게 실체도 없는 ‘샤인’(돈, 허상)을 찍어 내라고 했

듯이, 돈은 사람의 행위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지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실물 경제에서 금융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등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정신적인 ‘나’ 라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아리만은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상의 삶, 물질에 만족하도록 달랜다. 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제대로 된 자리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알고 듣고 읽는 것과 인지학을 우리 삶에서 함께 사는 것은 내적으로 너무 다르다고 하셨다. 그리고 “낮이 비축한 것을 잡아먹는 소모과정이라면 밤은 쌓아 올리는 회복과정이며, 우주 전체가 삶이다. 인간아, 너는 어차피 약해. 그래서 너는 더 나아지는 거야.”라는 이야기는 범종의 소리처럼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려왔다.

“파우스트, 인간, 우리는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공통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인지학과 예술 강좌를 우리 코앞까지 배달해 주신 이정희 선생님, 여상훈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교육예술을 위한 정신과 영혼의 기본적인 힘>(전집305)

제6강: 초등 아이들의 교육, 교육예술가로서의 교사(II) (일부)

한 인간 전체를 아는 것이 교육 그리고 교육을 위한 수업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는 만 11~12세 남녀 아이들이 겪는 발달을 관찰하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굽직굽직한 변화와 변형 생성은 관찰하지만, 좀 더 섬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런 섬세하지 못한 관찰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동들이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운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안해내고는 아동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강하고 튼튼해지고 역압이 없도록 하려면, 그 나이대의 아이들 몸은 영혼과 정신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관찰해야 합니다.

만 11~12세 사이에 사람의 내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리듬, 호흡, 혈액순환을 위한 체계가 이갈기와 사춘기 사이에서 가장 지배적인, 두드러진 변화를 보입니다. 만 10세가 가까워진 아이에게서는 호흡과 혈액순환체계를 움직이는 요소가 발달합니다. 즉 호흡계와 혈액순환계의 리듬과 박동이 근육체계 안으로 들어가 발달합니다. 근육은 혈액에서 양분을 공급받는데, 혈액은 사람의 내부에 일어나는 리듬을 타고 진동하여 근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 9~11세 아이의 근육체계는 내부의 리듬 기관들에 맞추어 형성됩니다. 만 11, 12세에 가까워지면, 리듬체계와 근육체계 안에 있는 것이 퍼져나가 빠를

이루는 체계 즉 골격 전체로 들어갑니다. 골격은 만 11세까지 완전히 근육체계에 맞추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체계에 따릅니다. 그러다가 만 11~12세 사이에 골격은 외부 세계, 즉 사람과 관계 없는 기계적 움직임과 역학에 적응하여 기계적 움직임과 역학이 골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골격을 충분히 이해하여 우리는 그것이 전혀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은 대상인 양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만 11세가 되기 전의 아이를 관찰하면, 모든 움직임이 아직은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 12세가 지난 아이를 관찰하면, 아이들이 발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골격 체계가 지렛대처럼 기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내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1~12세 사이에 정신적·영혼적인 것이 골격체계 안으로까지 퍼져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정신적·영혼적인 것이 훨씬 더 내면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12세 이후부터 사람은 자신이 가장 미미하게 밖에 체험하지 못하던 골격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온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비로소 지상의 아이가 됩니다. 이제 아이는 먼저 세계의 기계적 움직임, 역학을 염두에 둡니다. 아이는 사람의 삶에서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비로소 내면적으로 체험합니다. 실제로 만 11세가 되기 전에 사람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 11세 전의 아이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그런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11세 이전

에는 근육체계가 골격체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 12세가 된 뒤에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여 맞춰진 골격체계가 근육체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영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이제 원인과 결과, 힘,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느낌을 주는 것 등을 체험적이고 내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가 만 11세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광물학, 물리학, 화학, 기계학을 지나치게 지적인 형태로 가르치면 아이의 발달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의 아이는 아직 인간 전체로 기계적인 것, 역학적인 것을 체험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11세 이전의 아이는 역사와 옛날에 있었던 일에 담긴 인과관계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한때는 별들이 사람에게 말했으나
우주의 운명으로 별들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을 알게 되면
지상의 사람은 애석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없는 이 고요 안에서
사람들은 별들에게 말하기를 배웁니다.
그들의 말을 알게 되면
정신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1922년 12월 25일, 마리 슈타이너에게

아이를 위한 엄마의 기도

빛이 네 안으로 비쳐들어 널 사로잡기를.
난 사랑의 온기로 그 빛줄기에 동행하며,
큰 기쁨에 젖어
네 가슴 속 울림을 생각한다.
그 빛줄기는 너를 강하게 하고,
그 빛줄기는 너를 받쳐주며,
그 빛줄기는 너를 깨우쳐 주겠지.
네 삶의 발걸음에서
난 기쁨을 얻고 싶단다.
그 발걸음이 네 삶의 의지와 이어지고,
또한 그 의지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더 강해지기를.

일자 미상



아침 기도

태양은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별들은 들관과 도시 위에서 반짝이며,
동물들은 대지의 어머니 품에서 움직이며 뛰놀고,
식물들은 땅과 태양의 힘으로 살아가며,
돌들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인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신의 권능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살아있고,
사람은 신의 힘으로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하이슬러 가정의 자녀들에게,

1919년 6월 2일

저녁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제 귀로 들을 수 있음을,
깨어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별들과 구름에서
신의 빛을,
신의 사랑을,
신의 존재를 느끼며,
잠잘 때는
빛을 비추고,
사랑을 주며,
또 자비를 베풀어
저를 지켜주는 것을.

하이슬러 가정의 자녀들에게,

1919년 6월 2일

인지학센터 20주년 특집

44 인지학센터가 걸어온 길

48 길종각 선생님이 전하는 센터의 태동기

51 우리가 꿈꾸는 인지학 마을

53 인지학센터 연대표

54 인지학센터의 어제와 오늘

인지학센터 20주년을 축하하며

이은화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6학년 담임교사)

2000년 4월 어느 날, 5층 아파트가 단아하게 자리잡은 과천 7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이정희 선생님, 리타 테일러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인지학센터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아파트의 작은 거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동화 이야기, 발도르프학교 이야기, 인지학 이야기들이 열정적으로 오갔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손에 든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 관련한 자료는 당시 인지학센터에서 발행하던 <행동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계간지 이름처럼 자신들의 아이디어들을 이상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

오셨고, 그 결과 이제는 마포에서 터를 잡고 20살 청년기를 맞았습니다. 인지학센터는 한국에서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영유아 교육, 그리고 오이리트미와 수공예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사 교육을 담당하면서 발도르프학교와 영유아 현장들의 협력단체로서 그 중심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인지학센터에게 또 어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지 기대됩니다. 그 사명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지요. 감사함과 기대감 속에서 인지학센터의 2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인지학센터가 걸어온 길 - 아카데미의 출범과 확대를 중심으로

탐방: 한은숙, 백미경, 김송미

정리: 김송미, 한은숙

인터뷰

올해 인지학센터(이하 센터)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2003년 여름에 발도르프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2020년 1월까지 햇수로는 18년, 총 34번의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예비학기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는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2017년에는 오이리트미교사, 2020년에는 수공예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차례로 시작했다. 센터의 핵심사업인 교사양성 아카데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고자 2020년 3월 13일 천안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희 선생님을 만났다.



이정희 선생님

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독일에 계셨다고요?

1999년 첫 공부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1월에 센터 발족을 위해 독일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사범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발기인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연수단을 현지에서 맞이하고 통역을 할 때 인지학센터의 출범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귀국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름

학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2000년 3월에 문을 연 센터는 이미 발기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시작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 영유아 아카데미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발도르프사범대학 졸업생으로서 제 질문과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한국에 인지학을 소개하는 것과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질문과 함께 새로운 교육 현장들이 만들어지도록 기초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제 행사를 정말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한국에는 이

미 다른 단체가 발도르프 교사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발도르프 교육운동은 유아교육이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독일 유학 중에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많이 들었으므로, 센터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지도교수였던 슈테판 레버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사범대학 학장으로 활동하셨고 1997년에



영엔 유겐트세미나 기관장 우베 데커 선생님과 함께, 2000년 인지학센터 출범을 앞두고 발기인들(초기 사무국장 전은진, 울산과학대학교수 김정임, 초등학교교사 조경자, 슈타이너교육예술연구소장 김광선)의 독일 견학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 슈테판 레버 교수님은 저의 상황 판단에 바로 공감하셨습니다. 교육운동의 다양성을 추구하신 슈테판 레버 교수님은 한국에 발도르프 교육의 씨앗을 던져주신 주인공입니다. 교수님은 센터의 설립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셨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 방문과 세미나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국제발도르프학교연맹의 이사였던 유아교육사범대학장 페터 랑 교수님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센터는 2002년 늦여름 페터 랑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행사를 가졌습니다. 열악한 초기 재정 상황에서 센터는 파라다이스 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에서 4일간 발도르프 아동교육 공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한국 피아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제주도에 서도 국제 특강을 가졌습니다. 당시 발도르프교육의 인지도는 말 그대로 ‘황무지’였지만, 숙소와 식사를 후원하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국제 행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운영위원들은 랑 교수님에게 발도르프 유아교사 아카데미의 출범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랑 교수님은 운영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센터의 계획에 함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003년 8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과 연계하여 열흘간의 1기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총 4학기로 구성된 과정에 66명이 모였고, 집중 아카데미를 마치고 학기 중에는 주말 연수를 금-토 반, 토-일 반으로 나누어 열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학기를 마친 후 센터에 회오리바람이 찾아들었습니다. 세찬 바람은 운영체계가 없이 꾸러진 아카데미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1기 마지막 아카데미에는 33명의 연수생이 남았고, 최종적으로 28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센터는 좀 더 단단해졌고, 2005년 2기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는 100명 가까운 연수생이 모였습니다. 이후에도 편입을 요청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결국 2006년에는 집중 아카데미를 일주일로 줄이고 전체 학기를 5학기로 확대 조정하여 3기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여름 예비학기를 마치고 2013년 1월부터 시작되었군요. 유아교육 10년 만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

어간 셈인데, 준비 기간이 긴 이유가 있나요?

돌아보니 센터는 장소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출범지는 마포구청 근처였습니다. 그 후 과천을 거쳐 방이동, 종로, 대방동, 온수동에 있다가 다시 마포로 왔습니다. 2009년은 센터가 대방동에서 온수동으로 이전한 해였습니다. 이때 발도르프학교운동을 실천하려는 의지들이 모였습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길러낸 영유아과정 졸업생 중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운동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열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들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며 발도르프학교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즈음 언론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다루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부작용으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서막을 올리다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센터와 긴밀하게 작업했던 유학생들이 귀국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2010년 가을에 우리는 발도르프학교 설립 준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한껏 용기를 내어 학교 터전을 계약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1년 이상 순탄치 않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옥길동에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여름에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연계하여 담임교사 코스를 위한 예비학기를 진행하고, 2013년 1월부터 여섯 학기로 구성된 교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졸업을 앞두고 2015년 겨울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을 탐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센터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디플롬(정규 학위)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협력기관

을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비텐안넨 사범대학의 지원을 받았던 1기 과정의 학점 인정을 바탕으로 2016년 1월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과 연계한 예비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4년 과정으로 확대된 2기 학교교사 양성 코스가 2006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과정과 2017년 서울오이리트메움 설립 계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2015년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을 초빙하여 동화 오이리트미 공연이 있었습니다. 메르헨 앙상블의 총감독인 미하엘 레버 교수님은 그전에 이미 두 차례 한국 공연을 이끄셨습니다. 1998년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 최초로 선보인 오이리트미 공연은 한국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초청이었죠. 그때 저는 오이리트미에 대한 기초 정보도 없이 팸플릿의 번역과 제작에 협조하면서 오이리트미 공연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센터 초청으로 호암

아트홀에서 두 번째로 오이리트미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미하엘 레버 교수님은 오랫동안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의 학장으로 재직했으며, 저의 지도교수였던 슈테판 레버 교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 2015년 부천학교 공연 소식을 듣고 저는 안부 인사 겸 센터에서 오이리트미 특강을 마련하고 싶다고 독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와 협력하여 센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행사를 모두 마치고 단원들과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미하엘 레버 교수님이 중국에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 과정이 시작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한국도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위해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한데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하엘 레버 교수님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고 느슨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오이리트미 교사양성과정은 사실상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 스위스 피테아눔 분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고 많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재정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전공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깊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슈투트가르트 사범대학의 협력으로 시작된 교사양성 아카데미와 함께 오이리트미 교사양성을 위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한 예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오이리트메움”은 “오이리트메움”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 받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관입니다.

2020년 1월에 드디어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교사양성과정이 문을 열었는데, 이 코스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발도르프학교에서 수공예 과목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성을 발휘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공예 수업은 인간학적 배경과 아동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재주가 전혀 없는 저는 독일 유학 당시 담임교사 과정과 함께 부전공으로 수공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수공예 수업의 전문성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4~5년 간 여러 혁신학교에서 수공예 교육과 전문 수공예 교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학교의 수공예에 대한 정식 과정이 없다 보니, 센터의 영유아과정 졸업생들 중에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발도르프학교와 혁신학교의 수공예 교사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영역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영유아 현장과 학교교육의 수공예는 다릅니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센터의

수공예 담당 연구원인 한은숙 선생님과 발도르프학교에 재직 중인 몇 분이 학교 수공예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모임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발도르프 교사아카데미

기간 중에 뒤르 교수님을 모시고 수공예 집중 워크숍을 두 차례 진행했지요. 그때 체계적인 과정이 절실하다는 참석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사범대학에 과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1월 총 여섯 학기 과정으로 발도르프 수공예 교사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유아와 학교교사를 위한 발도르프 전문과정을 확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게 될까요?

삶이 그렇듯이 교육운동은 생동하는 실천입니다. 센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의식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이전에 예비된(?) 것 같은 그 무엇들(!)” 멋모르고 감행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유아 교사, 학교 교사, 오이리트미 교사, 수공예 교사 등 네 분야의 아카데미를 잘 유지해 나가고 실력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



발도르프 수공예교사 양성과정

니다. 추가로 아카데미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손유희와 라이젠, 그리고 아우디오패디 등입니다. 그 밖에도 예술 영역에서 음악, 습식 수채화, 조소, 포르펜 등은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은 교사의 역량에 좌우되므로 전문성을 가진 졸업생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요즘 독일에서도 젊은 발도르프 교사들의 인지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도르프교육은 인지학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인지학을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의 번역, 출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한국에 발도르프 사범대학이 문을 열고 다음 세대가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길종각 선생님이 전하는 센터의 태동기

탐방: 한은숙, 백미경, 김송미

정리: 김송미, 백미경

인터뷰

2020년 3월 20일, 봄기운이 가득한 날 강원도 홍천으로 향했다. 길벗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길종각 선생님을 만나 스무 살이 된 인지학센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센터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기로 했다.

인지학센터가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동양그룹 홍보실에 있다가 1994년에 서남재단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학술과 관련된 연구 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서남재단 부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일

이었지요. 당시 서남재단은 서울, 삼척, 익산, 세 곳에서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었고,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서남어린이집에 홍미영 원장이 계셨어요. 1995년 하반기에 제가 그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홍미영 원장이 서남어린이집을 발도르프 현장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께 사업을 보고하려면 제 자신이 뭔가를 알아야 했으니, 슈타이너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제 나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집에 도입하고 말고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사회운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이러한 사상적인 바탕이 있는 사회운동을 펼치려면 더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으로 국제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홍미영 원장의 소개로 허영록 교수를 만나 준비를 하고 1996년에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학장이었던 슈테판 레버 교수를 초청해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서남재단 주최로 서울 여의도 동양증권 건물 지하강당에서 1주일간 2~3차례 강연회를 진행했고, 이 강연회의 통역자가 이정희 박사였습니다. 강연회를 마치고 나니 그전까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던 이사장님이 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의 밀접한 교류가 있어야 하지만, 재단 내에 발도르프 교육학이나 인지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영록 교수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허영록 교수가



길종각선생님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사 양성 과정을 서남재단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사회적 변화나 기여 등 비영리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슈타이너의 철학과 사회삼원론, 특히 ‘자유’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지만, 인지학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뭔가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변화의 단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남재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지 못해도 출판, 인적 교류 등 기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 기획안을 짰습니다.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를 두고 기초자료를 구입하고 직원을 두는 등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었죠. 하지만 이사장님이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바람에 서남재단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출판도 하고 세미나도 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구상이 좌절된 것입니다.

연구소 설립은 무산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그래도 인지학연구센터는 21세기를 여는 2000년에 독립적으로 발족했고 그 당시 길 선생님이 고민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선생님께서 구상하셨던 연구소의 기능

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망한 연구소는 탄생하지 못했지만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가 문을 열어서 참 기쁩니다. 센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의 결과를 내고,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도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교육운동은 정신문화 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양한 생각이나 내용들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 사상에 대한 출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사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사상적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출판물을 내야

합니다.

제가 서남재단에 재직하던 95년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표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의 재단에서 간부급으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수가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회를 위한 유익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하는 연수였는데, 저는 실무자였지만 이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연수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수를 통해 비영리재단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남재단에서 일하며 흥미영원장을 통해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되었을 때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서남어린이집 하나만을 발도르프로 전환하는 사업



이태리 살라미타 농장 부부와 함께, 왼쪽부터 김종각(홍천 길벗농장), 고 강대인(당시 정농회 회장), 장은심(서울발도르프학교 교사), 고 오재길(정농회 설립자), 장구지(생명역동농법을 실천하는 홍성 농부), 이정희(인지학센터)

을 넘어 더 근본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센터 출범 시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소 설립을 기획하던 그 시절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적 질문들을 던지며 고민에 차있었습니다. 사회변화를 지향한 제 기획안이 좌절되면서 저는 98년 가을 재단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슈테판 레버 교수 부부가 저에게 권유했던 게 문득 생각나서 유학을 구상하며 사직한 그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슈타이너 칼리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부터 시골생활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귀농 준비에 돌입했고, 이어서 온 가족이 이곳 홍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농부로 열심히 적응하는 중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홍미영 원장을 중심으로 2000년 봄에 인지학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연락에 반가움과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마포구청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어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 그렇게 교육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집기도 없고 내부가 협소했지만 발기인들의 의지가 모여 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정희 박사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시점에는 이미 자원봉사자 그룹도 상당수 있었고, 곧 장구지 선생님도 합

류했었지요. 개척기답게 모두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농부니까 홍천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인지학센터와의 인연 속에서 독일 교수를 모시는 국제행사가 있으면 운전기사로 자원봉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센터 발족 이후 2003년에는 정농회 농부들과 함께 생명역동농법을 실천하는 유럽의 슈타이너 농장 탐방도 동행했습니다. 생명역동농법을 실천하려면 농부의 삶 자체가 인지학적이고 생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해외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개척기를 뚫고 갈 엄두도 안 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험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 아직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20 올해 인지학센터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위해 교사 양성 과정을 열심히 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인지학출판사를 통해 슈타이너 전집을 번역하여 한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랜 후원자로서 인지학센터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슈타이너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면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후원과 기부, 모금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합니다.

그 사이 세월이 흘러 제 아들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오이리트미를 전

공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이리트미라는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후원 없이는 예술이 꽃필 수 없다. 그러니 경제 부분이 같이 가주어야 한다. 물론 경제 부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지만, 사회로 바람직하게 흘러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에서 뜻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해내려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교육운동에 동참하도록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작은 후원도 받고 큰 기부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후원자 그룹이 생겨나면 센터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길종각 선생님과 인터뷰는 인지학센터의 첫 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 센터의 여러 활동들이 시대적 요청과 흐름 속에서 구체적 과제로 부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벗농장에서 사과나무 가지치기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길종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가 꿈꾸는 인지학 마을 -연수원 부지 방문기

정리: 김송미

인지학센터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에 위치한 1,250여평 입야에 대하여 2020년 2월 24일 등기를 마쳤다. 서울 마포에서 차량으로 북서쪽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곳은 2019년 총회에서 연수원 부지 결정을 위임 받은 오경희, 최분희 두 분 이사님께서 발로 뛰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신 결과물이다. 김포시의 끝자락, 강화대교를 약 1.5km 남겨두고 48번 국도에서 벗어나 마을길을 따라 약 2km를 들어간 곳에 센터의 연수원 부지가 자리하고 있다.

2020년 3월 25일 오후 3시 무렵, 인지학센터의 운영위원과 연구원들의 차량이 차례로 이곳에 도착했다. 마을 길은 논과 밭을 가로질러 마을 안쪽으로 이어졌다. 마당과 텃밭이 잘 정리된 집이 있는가 하면, 간간이 빈집들도 눈에 띄었다. 마침내 길 끝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며 모두가 탄성을 터트렸다. 앞쪽으로 논과 밭을 지나, '염하라 부르는 강화해협'과 그 너머 강화섬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졌다. 아! 바로 여기가 센터의 연수원이 자리할 곳이구나... 입야답게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우리는 기

념사진을 찍고 잠시 머물며 마을과 주변을 둘러본 다음 설레는 소감, 개인적 소망,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카페로 자리를 옮겨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운영위원과 연구원 몇 분이 먼 길을 마다 않고 함께해서 기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위해 가까이 함께하신 분들이 계셔서 센터가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일을 해 올 수 있었던 같다. 특히 인지학센터가 한국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단단하게 자리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한 때 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의 꿈을 드러낼 이곳을 여럿이 방문하며 센터의 큰 발전을 확인하고, 더욱이 인지학센터가 걸어온 20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기회였다. 센터가 발도르프 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건강한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전개하려면 건물이 세워져야 하고,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인 발도르프 사범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과제

를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인지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소박한 인지학 마을까지 형성되길 염원한다.

말이 씨가 되기를 소망하며...

“좁은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며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불안감이었어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하나? 더 들어가면 차는 돌릴 수 있을까?’ 막상 도착하니, 우리 땅을 향해 햇빛이 쏟아지고 앞쪽으로 바다가 보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수원이 지어지면 어느 층에서도 바깥 풍경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발도르프학교인 울란츠회에의 건물이 연수원 부지 위에 서있는 것 같은 행복한 착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건축위원회를 꾸려 이 땅에 어떤 의미를 가진 건물이 들어서고 앞으로 어떤 꿈들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요. 청사진을 충분히 그려 비전을 보여주고, 의미를 담은 미래상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모이면, 뜻 깊은 기부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겠죠?”

“앞으로 건축 설계와 관련한 조언과 자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위원회가 꾸러진 후에는 지역 발전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먼저 의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의지들이 모이고, 그래야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연수원을 짓기까지 설계만 아니라 실제로 건축을 집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고 기업의 가치관도 센터와 잘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지만, 발도르프와 인지학을 널리 알리는 데에 함께 갈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질 테니까요.”

“인지학에서 우리가 배운 7년 주기를 생각하면 21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내년이 센터 21주년이 되는 해이니, 이에 맞추어 일단 토목공사라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 3년, 5년, 10년 등 약정 기간을 나누어 기부금 릴레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개인이 3년 동안

월 3만원씩 건축 기금을 내면, 108만원의 건축 기금이 모아집니다. 그 개인은 기부 약정서를 쓰고, 센터에서는 기부 증서를 발행해주는 거예요. 큰돈으로 한 번에 건축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기부 서약을 해주시면 더욱 행복한 일이에요!”

“제 머리 속에는 그림 한 장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영유아 현장부터 12학년까지의 발도르프학교, 사범대학까지 한 마을에 다 있으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점차 인지학 마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모두를 위한 인지학병원이 들어오

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치료실이나 양로원, 은행까지 말예요. 농사짓는 사람과 게스트하우스도 꼭 필요하고요. 집을 제공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마을 안에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너도 나도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고 싶네요!” 🍀



상: “발도르프 연수원의 상향식을 벌써 그려 봅니다.”

하: 센터 일에 발로 뛰시는 오경희, 최분희 이사님과 백미경 원장님

인지학센터 연대표

			연혁
			1999 6월 '발도르프 교육 연구회'(가칭) 월 1회 공부모임 시작
		소재지	
		2000년 3월 ~ 마포	2000 1월 계간지 <행동하는 정신> 창간 3월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소 창립(발기인 6명)
		2001년 2월 ~ 과천	2001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 "엘제 클링크 앙상블" 내한공연(호암아트홀)
		2002년 2월 ~ 송파	2002
아카데미			2003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사범대학과 협력,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 전문가 과정 개설
2003년 ~ 2005년 7월 1기 졸업			2004
			2005
2005년 ~ 2007년 7월 2기 졸업		2005년 2월 ~ 종로	2006
2006년 ~ 2009년 1월 3기 졸업		2006년 2월 ~ 대방	2007
2007년 ~ 2010년 1월 4기 졸업			2008 12월 사단법인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소 설립
			2009
2009년 ~ 2011년 8월 5기 졸업		2009년 2월 ~ 운수	2010 3월 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초청 공연 독일 비텐 오이리트미 앙상블 "젊은 무대" 내한공연
2010년 ~ 2012년 7월 6기 졸업			2011 5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6월 나임평생교육원 설립
2011년 ~ 2014년 1월 7기 졸업			2012 10월 행동하는 정신 출판사 설립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발도르프 교사 양성과정 개설
			2013
학교			
2013년 ~ 2016년 8월 1기 졸업			2014 5월 나임평생교육원을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14년 ~ 2016년 8월 8기 졸업		2014년 4월 ~ 마포	2015 나임방과후예술학교 개원
			2016 8월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 설립 10월 한국인지학출판사 설립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디플롬 과정 개설 (독일 오이리트메움 슈투트가르트 협력)
			2017
오이리트미			
2016년 ~ 2019년 8월 9기 졸업	2016년 ~ 2020년 8월 2기 졸업예정	2016년 12월 ~ 2020년 1기 4학년	2018 1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로 명칭 변경 11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가을·겨울호 창간
			2019 기부금 단체 지정 6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봄·여름호 발간 11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가을·겨울호 발간
		2018년 12월 ~ 2020년 2기 2학년	2020 연수원 부지 매입
수공예			
2020년 1월 ~ 1기			

20년 나이테를 만든 장소들



2000년 마포 성산동



2001년 과천 별양동



2002년 송파 방이동



2005년 종로 돈의동



대방동, 은수동을 거쳐, 현재 마포 독막로

발도르프 씨앗을 심어주신 페터 랑 교수님



2016년 고별 강연



2002년 영유아 아카데미 출범을 위한 담화



어느 해 영유아 아카데미를 마치고



2008년 영유아 아카데미 교수진과 통역진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기념공연
좌석

UJ. 02
독일 슈투트가르트 메르헨 앙상블

동화 오이리트미
여섯 명의 하인들

2019. 5. 1.(수) ~ 5. 2.(목)
오전 11시 (80분공연)

개인 15,000원 단체 10,000원

주최 :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
www.steinercenter.org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좌석

발도르프학교
오이리트미 공연

2019. 5. 1.(수) 오후 4시 (60분 공연)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1층 (대방역)

www.steinercenter.org
anthroposophy@hanmail.net

주최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오이리트미예술원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57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

58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59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60 숲속나무어린이집

61 향동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63 담양 살구나무 킨더가르텐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KASWECE) 창립

정애영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
대표)

저희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이래로 국내외적인 연대를 위한 조직의 창립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7일,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가 창립총회를 가졌고, 2020년 2월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어 국제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IASWECE)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영유아 교육 현장에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뿌리 내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 한국의 발도르프 교육이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을 위한 올바른 상으로, 미래사회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모범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지오, 몬테소리 등 영향력이 큰 교육단체들처럼, 발도르프 교육도 목소리를 합쳐 함께 교육을 책임질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여러 발도르프 교육단체들이 연합하여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를 창립한 것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2019년 12월 7일 창립총회는

- 국제 발도르프 연대에 대한 설명
 -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창립준비위원회 경과 보고
 -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준비를 위한 창립총회 대표 승인
 -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 정관 승인
-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 결성과 함께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뜻을 같이한 회원들께서 함께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는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의 3가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①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기관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② 국가 차원의 어린이집 평가제 전환에 따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의 사회적 기여 방안
- ③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와 원장들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모임이나 조직과의 연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의 실천을 지향한다는 것이 연대 참여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힘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제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IASWECE)의 일원으로서 현장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자문하면서 영유아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KASWECE)가 이루어낼 사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심화하여 아이들을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현장과 교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 의견을 모으고 함께 연구하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



“국제 연대의 출발! 발도르프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운동임을 실감합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나무의 노래

최효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1학년 재학생)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람
아침 햇살이 나무를 간지럽히면
그 웃음이 뿌리로 와 나무는 깨어나
노래하네”

2012년 밝은 빛과 함께 문을 연 서울 자유발도르프학교는 올해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1, 2, 3학년으로 시작한 학교가 이제는 11학년 교실까지 꽉 찬 학교가 되었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30여명의 선생님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수업은 에포크(주기 집중 수업)와 다양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아가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은 더 많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다양한 종류의 과제를 아낌없이 선물 하십니다.

후끈후끈하게 수업을 마치고 나면 교실에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부 냄새”가 나고, 우리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 학교는 창문이 참 많아서 다른 학년들의 쉬는 시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복도를 밟 바퀴나 도는 여자아이들, 여기저기서 공놀이를 하는 남자아이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귀 따갑게 종 치는 소리가 들립

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섬주섬 공책을 꺼내며 다시 수업 들을 준비를 하지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팀원들은 다 함께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웃고 즐기며 더 많은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연극 동아리의 경우, 1학기 초에 팀원들끼리 의논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며 계획표를 만들지요. 그리고는 안 지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연습하다가도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초조해지지요. 모두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지만, 좀 더 나아지는 우리의 연극을 보며 같은 장면을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동아리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행사, 마칩 연극과 영어 연극, 1년에 꼭 한 번씩은 있는 발표, 그리고 농업·측량실습까지, 지금 모든 걸 다 쓸 순 없지만 학교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정리됐다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노력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며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아 오랜 시간 동안 애깃거리가 됩니다. 자신과 남들의 실수,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 등 진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며, “그래도 우리 그때 그 정도면 잘한 거지.” 하고 의기

양양하게 얘기하지요.

계절에 따라 나무의 모습이 바뀌듯, 우리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도 1년 내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다 함께 더 좋은 학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꿈꾸지
우리들은 미래를 노래하지
행복하고 즐거운 소리
희망꽃으로 피어나네” 🌻



안! 념! 하! 세! 요! 우리는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의 식구들입니다!

김지은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5학년 담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어느 멋진 날. 환하게 학교마당에 모여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웃었던, 함께했던 그 시간들,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를 소개합니다.

저 마당은 우리의 12개 학년 학생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모두 합쳐 수백 번 오가는 곳이랍니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산자락, 이곳 학교마당에 모여 일년에 한 번 사진을 찍는답니다. 2020년 현재 282명 학생과 40명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 과천에서 5명의 학생들과 교사 1명이 함께 과천자유학교로 시작했고, 2011년에는 경기도의 왕으로 이사 와서 새롭게 학교 건물도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식구들이 많아졌어

요. 벌써 12학년을 마친 8회 졸업생들까지 멋지게 성장하여 사회로 나가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배움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학교 건물을 4층으로 올리는 중축 공사도 마무리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수업공간들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영혼의 빛깔과 높은 정신적 자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성과 감성, 의지가 조화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예술적 체험과 방식을 통해 아름다움과 조화로우움을 경험하고, 이성적 사고를 활용하는 수업을 통해 자유롭고 올바른 판단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일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작은 희망의 빛으로 커갈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교 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망의 불길로 커져, 이제는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으로 나아가는, 되어가는 학교입니다. 아직도 기본을 알고 지켜야 할 것, 새롭게 시도해 보아야 할 것, 한국 사회의 교육 운동에 힘을 내야 하는 것 등 할 일이 많은 학교이지만, 기쁘게 뚜벅뚜벅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우리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

주소
(우)16000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89 (청계동 440-1)

홈페이지
<http://www.cgfreeschool.kr/x/>

연락처
070-4322-0200~1 (도움터)
070-4322-0202 (교무실)
070-4401-0204 (방과후 교실)

이메일 주소
admin@cgfreeschool.kr (도움터)



숲속나무 어린이집 “자유의 숲”

“광대한 우주로부터 태양은 사람의 감각에 말을 건네는”으로 시작하는 슈타이너의 시처럼, 우주로부터 감각에 말을 건네받은 지 4년이 지나 7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평 ‘자유의 숲’ 숲속나무 어린이집입니다.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놀이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으로 의지를 길러주는 숲속나무 어린이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600여평의 넓은 공간에는 모래밭과 놀이집, 그네 텃밭과 논이 있으며, 흥미로운 자연물들을 놓아두어 수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합니다. 식물의 씨앗처럼, 숲속나무 어린이집은 그 안에 앞으로 자라서 표현될 미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강낭콩은 넝쿨을 뻗어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벼는 논에서 자라 이삭을 내며 여물을 갑니다. 이처럼 숲속나무 어린이집에는 잎을 내어 열매 맺는 씨앗과도 같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들의 미래를 표현해가도록,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교육예술을 실천합니다.

놀이가 아이들의 진지한 작업의 능숙한 손가락 놀림 활동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숲속나무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는 예술가로서 본을 보이며 활동을 돕습니다. 각 교실에는 상품화된 놀잇감 대신 원형 그대로인 자연물, 자연물을 활용하여 실물을 모방한 놀잇감, 수작업으로 만든 놀잇감들을 비치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휴식과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예술 활동으로 목공, 조소, 습식 수채화, 아침 모임, 라이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절기와 세시풍속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 생태 체험 활동은 물론이고,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을 축제, 학부모가 참여하는 연말 모임도 가집니다.

숲속나무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하여 내외의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가정방문으로 부모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과의 연계를 풍성하게 하여

고금려
(숲속나무 어린이집 원장/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예술가 전문과정
9기 졸업생)

아이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이 총체적으로 발달하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아이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특별한 교육철학과 함께 발도르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협력이 있는 덕분입니다. 함께 이 길을 동반하는 교사,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항동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자신의 집 짓기”

백다교
(항동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교사/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전문과정
1기 졸업생)

“유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 페터 랑

유치원에서 마지막 ‘왕의 해’에 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
해 볼 수 있거나 한계를 알 수 있는 외
적 요구나 과제가 필요하고, 이런 도
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주는 유
치원(가정)의 확실한 일상 리듬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안정과 보호된 교육
환경 안에서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무
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몽상적이며, 놀이에 열중하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과제수
행에 즐거움을 느끼며, 어린 동생들을
도와주는 것에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이 7세가 되면 유치원(가정)의
모든 활동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의 내적
성장과정에서 유치원의 마지막 왕의
해를 맞이하는 7세 아이들에게는 자
기 자신의 고유한 발달 능력과 욕구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경험해 나가
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충동과 동시에 가
족, 엄마 품에 더 머물고 싶은 욕구라
는 두 가지 방향성은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들의 내적 상태로, 7세 이같이 시
기부터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유치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생겨나는 이러한
신체적 성장의 특성과 심리적, 영혼적
갈등은 7세 시기 유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적 혼돈입니다.

이런 성숙의 시기에 있는 7세 아동
들은 자신의 유년기를 마무리하고 새
로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는 7
세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잘 지지하고
격려하며, 이같이 시기의 자기 성숙의
과정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주변의 어른들이 함께 동반하는
가운데, 본보기와 모델링이라는 교육
학적 원리를 잘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
기도 합니다.

저희 구로 항동 킨더가르텐에서는
7세 시기의 유아와 그 부모님들과 함
께 이 왕의 해를 맞이 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의 힘과 분화하려는 내면
의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완성해 나
아갈 수 있도록 동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세 아이들은 혼합연령이 특징인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의 교육 환경과
리듬 생활 안의 놀이와 일상 및 활동
을 통해 어린 동생들에게 커다란 교
육적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본보기
는 어린 연령의 동생들의 선망의 눈빛
을 통해 드러납니다. 7세 아이들이 스
스로 뭔가 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일상 활동, 예술 작업들이 있
습니다. 밀랍 크레파스 그림 그리기,
밀랍 점토 놀이, 습식 수채화 그리기,
산책하기 등의 주간 리듬 생활은 아이
들의 에테르체 안에 깊은 흔적을 남기
고 영혼의 힘을 강화하며 자기 자신의
힘을 스스로 형성하게 해 줍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삶
에 기초가 되는 능력을 마련해주는 중
심입니다. 이 유아교육의 목표는 일곱
가지로, 신체 능력과 움직임 능력, 감
각 능력과 지각 능력, 언어 능력, 상상
력과 창의성, 사회적 능력, 동기부여



능력과 집중 능력, 윤리·도덕적 가치 능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교육 목표 아래 구로 항동 킨더가르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집 짓기, 찰흙 집 짓기, 톱질하기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7세 아이들은 자유놀이 중에 10~15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집중과 듣기, 몰입의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한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경험하는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완성해 나가려면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섬세한 소근육을 움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실들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직조 천을 완성하거나, 다양한 수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능력

등 예술 활동과 생활 작업을 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고 새로운 생활과 공간을 아름답게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작업과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자신의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며 스스로 자신이 완성해 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7세 아동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2, 3년의 유치원 경험을 통해 갖게 되지만, 한두 달의 시간만 지나면 다시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로만 가볍게 접하던 것을 이제는 완성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집중은 아이들을 점차 지루하고 힘겹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이런 자기 한계치, 임계점을 경험해보면서 끝까지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경험을 하도록 교사가 동반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유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7가지 기초 능력에서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윤리·도덕성 능력 기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교육 목표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활동에서 얻는 이런 자부심과 자

긍심의 경험들은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삶의 주도성과 윤리·도덕적인 감각을 길러나가는 좋은 과정이며,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간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경험입니다.

졸업을 위한 축제인 '졸업식'으로 유년기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졸업을 위한 축제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진행합니다. 졸업을 축하해주는 부모님들의 성장기와 노래 선물은 함께한 모두에게 해마다 감동의 눈물을 선사하기도 하지요. 남아있는 부모들의 축하 노래가 늘 가장 좋은 화음과 울림이 되어, 앞으로 구로 항동 킨더가르텐에 남아서 아이들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랑을 전합니다.

7세 아동들의 한해살이와 졸업을 통해 매년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이들, 부모, 교사들. 이 모든 이들이 자신에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일과 역할을 기쁘고 즐겁게 해 나가는 커다란 동력을 이 졸업식 축제를 통해 얻게 됩니다. 🍀



살구나무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함께 나눈 빛들”

이재희

(담양 살구나무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원장/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3기 졸업생)

“안녕하세요! 다섯 아이와 작은 집과 마당 놀이터에서 지내요. 그 중 제 아이가 셋입니다.”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인지학센터에 공부하러 온 첫날을 연 인사말이었다.

일주일을 어디서 머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경제적인 궁핍함도 미뤄두게 만드는 정신의 이끌림이, 날마다의 바깥일과 집안에서도 뒤죽박죽. 이리 저리 에너지를 발산하느라, 읊기는 것들도 많았다.

발도르프 형식을 추구하던 그 시절, 발도르프를 실천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 연수를 가서 발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베푸는 눈길과 진정한 관용, 최소의 개입으로 보호하는 힘과 풍성한 내적인 자세였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대하며 한계에 부딪힐 때 마다 다시 연수를 받으며 나를 다시 세웠다.

아이들에게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경험해 가며 그 길을 찾아 가게 된 것이다.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이라는 형태로 유아기관의 정체성을 갖는 살구나무에서의 리듬이 내게도 힘을 갖게 해주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내적인 힘이 점

차 나에게도 생겨났다. 내가 이끌던 서도 이끌리고 함께 웃고 즐거웠다. 존중은 나를 성장하게 했고, 자연스레 아이들에게도 스며들 듯 이뤄졌다.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 즈음 살구나무 엄마들이 발산하는 아기들의 따뜻한 생명력에 나 또한 두 번 더 잉태와 출산을 겪었다.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에서 깨어 있고 싶었다. 의식적으로 고통을 인식하고 함께하면서 어쩌면 살구나무 아이들과 함께 출산을 경험한지도 모르겠다.

아기가 눈을 뜰 때부터 걷기까지 열명의 아이들을 함께 동반했다니...

동생이 없던 아이들에게는 더 없이 좋았던 시간들이었다. 많은 배려심을 내어준 참 고마운 어머니들.

살구나무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선물들이다.

복잡한 듯 평화롭게 아이의 울음 소리가 늘 들려오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생명력은 그 자체로 생기와 고요가 함께했다. 어쩔 내가 찾고자 했던 아이들 앞에 온전히 선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축복.

단순하지만 끊임없는 창조성은 세상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어린아이 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늘 새로



움을 보여주었다. 그 시절 나의 과제는 좀 더 역동적으로, 그렇지만 고요하게 자유놀이를 위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날마다 한 발씩 내딛던 그 즈음, 다시 피테아눔에서 경험한, “내가 존재할 때 아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주제가 나를 한번 더 길을 나서게 했다. 아이들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놀이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자신의 행위와 의 현존상태가 되어감에 따라 판타지가 피어나고 생기를 갖게 되었다

진정한 예술을 교사로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가치를 챙기고 나서 행하는 일은 풀을 매거나 마당을 쓸고 관리하는 일이었다. 쌀을 씻고 설거지에 집중하는 일. 엄마가 일구는 일상의 생활이었다. 텃밭이며 요리, 그리고 절기살이... 자연의 순환에 동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수와 소박함.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나의 본성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 천지가 부모라는 큰 우주적 사상을 실천하며 사셨던 할머니 세대를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십 년을 넘도록 늘 같이 다니던 살구나무 뒤 작은 숲길. 이제 혼자서 산책을 한다. 산벚꽃이 피고 연두가 올라오고, 나뭇가지는 새싹을 내밀고 있다. 아이들이 내어준 손길, 눈길 그리고 마음의 빛들을 느껴본다.

살구나무 킨더가르텐이 지금 그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삶에 펼쳐 보려 한다.

고마워^^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함께 나눈 빛들. 🍷



빛나는 2020, 여럿이 함께

66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국제컨퍼런스

68 2020년 상반기 이모저모

72 도서 소개

76 뜨거운 응원

8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82 광고

개정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유아 중심 놀이의 실제

이창미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2019년 12월 7일(토) ~ 12월 10일(화) 3일 동안 서울, 울산, 화순 지역을 잇는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국제컨퍼런스가 700여명 현장교사들의 참여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개정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유아 중심 놀이의 실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와 독일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영유아교육대학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미리암 툴(Miriam Thiel)의 기조강연(“발도르프 영유아교육의 핵심 가치”)을 시작으로 이남정 센터장(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과 송연숙 교수(울산과학대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화순에서 오랫동안 발도르프 유아교육현장을 이끌어 오신 김종현 원장(낙원어린이집)의 개정누리과정의 실천적 이해와 현장적용의 실제에 대한 주제 강연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큰다우리 발도르프어린이집 현장리듬에 관한 사례발표”(이혜련 원장)가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울산에서는 회수자연학교어린이집(백승미 원장)과 햇살마을 발도르프어린이집(문서경 원장)에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발도르프 교육현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은 영상과 놀이감 전시로 컨퍼런스현장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은 계획과 평가를 중시하는 성취 중심의 누리과정으로 인해 그 빛을 사회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빛과 에너지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비추어질 수 있으리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기조강연자인 미리암 툴이 전하는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는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한국의 많은 영유아교사들에게 명료한 ‘답’을 제시해주기에 충분했다. 놀이가 유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교사는 놀이하는 유아를 어떻게 지지하고 협력 해주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미리암 툴의 기조강연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소고를 마치고자 한다.

미리암 툴이 기조강연에서 답하다

첫 번째 질문: 놀이는 유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영유아 시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판타지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놀이를 통해 내면의 의지와 판타지의 힘이 발현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놀이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1. 아이들의 놀이에는 경계가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놀이를 통해 경험하고 극복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내면의 정서를 밖으로 그려낸다. 아이들은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일상에 대한 상을 놀이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자기를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어간다. 아이의 놀이는 몸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으며, 몸의 움직임은 하부위 감각(생명 감각, 운동감각, 촉각감, 균형감각)에 근거한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안전에 대한 본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직감적으로 구별하고 하부위 감각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통합해간다.

2.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배움과 학습이 일어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체험, 스

스로 생각하는 능력, 위협을 피하는 기회, 언어를 발달시키는 기회, 내면의 작업을 통해 발달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 스스로 포기하고 양보하는 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등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두 번째 질문: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사는 아이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존중을 기반으로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진정성 있는 내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외면과 내면이 일치해야 한다. 영유아는 어른들과 연결되어 있고 어른의 내적 자세에 민감하며 어린아이일수록 성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가 진행될 때 어른들은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어른들은 어른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어른의 활동에는 진정성과 즐거움이 담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언제든지 모방하기 때문이다.

3. 자연이 마련해준 것처럼 최대한 좋은 놀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놀이 시간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놀이공간, 완성되지 않

은 놀잇감, 다양한 무게와 크기의 나무토막, 다양한 질감의 돌, 보자기와 다양한 색의 천 등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놀잇감을 제공해준다.

4. 교사는 돌봄 시간에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애착의 토대를 이룬 아이라면 온전한 자유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신뢰 관계 안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아이는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컨퍼런스(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300명 참석)



울산 컨퍼런스(울산 북구청 대강당, 250명 참석)



낙원 발도르프어린이집에서 전남보육정보센터장과 좌담회
“이곳 현장은 천상의 낙원 같네요!”

2020년 상반기 이모저모 예술강좌

발도르프 미술 교육

2020년도 발도르프 미술 수업은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2월20일을 시작으로 각 8주에 걸쳐 식물, 동물, 풍경화 그리고 소묘에 대한 주제로 발도르프 교육학의 가치와 내적 힘의 강화를 경험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발도르프 음악 교육

이윤옥 선생님의 “킨더라이어 연주법” 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라이어는 아이들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악기를 통해 작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아우디오패디” 수업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활력과 창조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수공예 교육

4월부터 다시금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강좌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열려있는 감각을 자극하고 아이들이 상상의 힘,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놀잇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실크 소재의 손가락으로 조종하는 “인형극 제작과 시연” 강좌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환타지를 줄 수 있는 무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이리트미

정나란 선생님의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강좌로 빛과 온기를 통해 자신과 공간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집중하고 잠들지 않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지속하는 음악과 언어를 표현해봅니다.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입니다.



자격증 과정 / 특강

자격증 과정 - 발도르프 미술강사

안미순, 손석심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발도르프 미술강사 3급 자격 과정은 2020년 5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저녁반으로 총 12회로 진행됩니다. 영유아교사와 부모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3급 자격증 취득 후 발도르프 미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교육 현장(유아교육기관, 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시설 등)에서 지도하고 기획할 수 있습니다.



특강 - 감각을 깨우는 계절 환경 꾸미기

계절별로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계절의 색채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수채화 그림과 오후에는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의 촉각 각 발달을 돕고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소품을 만드는 수공예를 통해 계절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강 - 계절 노래 시리즈

슈타이너 5음계 노래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하면서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득한 5도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움직임과 함께 노래하며 들숨과 날숨을 이용하여 쉽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지학과 인문학

독일어

이정희 선생님과 여상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4주 단위로 독일어의 기초문법과 듣기, 말하기 그리고 독일 문화의 이해를 배워 봅니다.

발도르프 교육학과 인지학에 담긴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생생철학 시리즈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바탕인 인지학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생생철학 시리즈”는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 각 4주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회 다른 주제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인류 정신사의 변천을 체험하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지학 포럼

2019년 봄부터 시작된 “인지학 포럼”에서는 인지학 공부에 대한 갈증과 열정에 호응하여 인지학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입니다. 한달에 한 번, 인지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모임에는 인지학의 심화를 위해 우리 고전을 살펴봅니다.

- 주제: 삼국유사
- 발제: 이양호
- 시간: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18:00~21:00

환급과정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 환급과정

2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정이었던 D1 환급과정 <2020년 발도르프 현장리듬구성 토요일 강좌>가 코로나 19로 4월 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A1 환급과정 <발도르프 영아보육의 핵심과 실제> 역시 코로나 19로 2차에 걸쳐 연기되어 4월 11일 시작되었으며, 모두 14개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환급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강의를 듣고 영아보육 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이 많다는 것으로,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호응이 높다. 작은 하프인 라이어 연주, 습식 수채화, 양모공 만들기, 손유희와 움직임 놀이, 계절노래 부르기, 아롱이 인형 만들기, 이론수업으로는 자유놀이와 관찰, 협력적 돌봄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알차고 유익한 강의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친 후 수료증과 함께 국제 발도르프 교육예술가 3급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더 만족감이 높다.

센터 소모임

라이어 앙상블

- 매주 토요일 6시
- 원하는 사람들 중 악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
- 초보자 환영
- 수시 모집
- 르네상스·바로크·고전시대의 클래식 곡들을 중심으로 연습하며 연 1회의 연주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이윤옥 010-8010-5389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및 발도르프 교육서 소개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8,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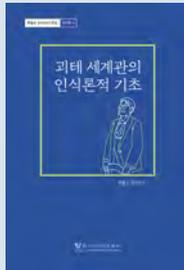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의 창시자인 저자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다.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특히 실러와의 관계를 참작하며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유를 통해 “정신이 현실인 세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식론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의 철학적 원천은 괴테 저작의 “내적인 확실성과 조화로운 완결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철학과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신 세계의 현실을 지향하는 인지학이 창설된다. 슈타이너 인식론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전집 제2권의 첫 한국어 완역판.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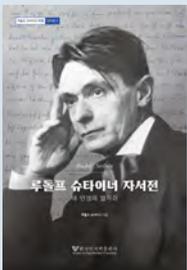
우주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본.



발도르프 교육예술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7,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런던에서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책이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인간 본성을 증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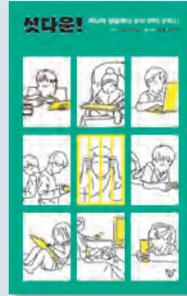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 인지학 설계자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2,000원 / 이정희 옮김 / 발행 싱크스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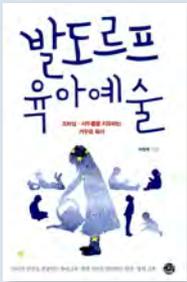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론은 자유로운 생각, 자발적인 표현과 사고 안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 책은 창의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박수찬(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셋다운!

미디어 정글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diagnose: media” 지음 / 여상훈, 이정희 옮김 / 가격 미정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저주가 되었다. 이 책은 발달 단계에 따라 미디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사례와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기초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 이르는 지침을 모두 담았다. 교육자와 부모의 필독서.



발도르프 육아예술

조바심·서두름을 치유하는 거꾸로 육아
 이정희 지음 / 14,000원 / 발행 싱크스마트

43가지 발도르프 육아 이야기
 인지 위주의 학습을 멀리하며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 고유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한편,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다.



교사 루돌프 슈타이너를 만나다

요한나 뤼케, 알빈 알프레트 루돌프 지음 / 여상훈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슈타이너 박사는 학생들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에든 지극히 따뜻한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고충과 희망에 늘 함께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선함은 햇빛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밝혀 주었다.”
 -요한나 뤼케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2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의 고전, 영유아기 그림 언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아기는 놀이에서 배운다

모니카 알뤼 외 지음 / 이정희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이 책은 영아반의 이상적인 공간구성, 자유놀이 발달에 적합한 시기별 놀이감, 부모와 교사의 동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발도르프 성교육

아동 발달을 토대로 한 성교육 지침
 마티아스 바이스, 엘케 뤼케, 미하엘라 클뢰클러, 볼프강 괴벨, 만프레드 반 도른 지음 / 이정희·여상훈 옮김 / 12,000원

발도르프 교육학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2020 / 21년 출간 예정 도서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GA 8)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정신과학적 인간 이해의 교육적 실제 (GA 306)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괴테의 세계관 (GA 6)

신지학 해제 (GA 95)

신지학 (GA 9)

비밀학 개요 (GA 13)

보이는 노래인 오이리트미.

음악오이리트미 코스 (GA 278)

〈발도르프 교육서〉

아우디오패디 - 듣기 예술

라인힐트 브라스 지음 / 이수영 옮김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서

자유발도르프학교의 교육과정

발도르프학교 수공예수업의

대비늘뜨기와 코비늘뜨기

수공예의 형성과 발견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자유놀이의 시작

영유아를 위한 준비된 환경

나, 너, 그리고 우리

관찰하고 이해하고 동행하기

기저귀와 작별하기

아기와 대화하기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인지학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

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판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31-710055 인지학출판사
*구좌 100,000원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20년 3월 현재)

D.모로 H자이델 M레버 P랑 강아미 강애란 강자경
고민아 구태영 권금례 권영완 길종각 김관우 김꽃님
김남희 김미서 김백기 김세환 김송미 김수남 김영미
김용인 김윤희 김정임 김철기 김태영 김태희 김현주
김훈태 모명숙 문지은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백선미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송광수 송미령 송윤경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신은주 안미순 안소희 안지환 여상훈
오경희 오해년 윤인영 윤정민 윤정원 이강두 이기림
이미영 이미정 이상윤 이상희 이선아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윤옥 이은희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장구지 정다운 정다운 정재연
진금주 천경자 최계연 최분희 최종희 최한희 하건호
하주현 하태훈 한미경 한은숙 홍귀자 홍명애 홍윤문
황인화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주)W네트웍스(벨레다)
(주)삼화알마늄
(주)아이보트 투어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킨더가르텐
금호어린이집
길벗사과농장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마리아의종 어린이집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프유아교육동문회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부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어린이박물관카페
'도담도담'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이화유지원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학교 파팔라코리아
한울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 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연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CMS)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관회원

2019년 1월-12월

(시흥)초록나무어린이집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고양이뜰 어린이집
구립꿈마루어린이집
구립올림픽파크꿈별어린이집
구립크니크니어린이집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또래숲속학교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
반석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부천동그라미어린이집 대표
빛의아이들킨더가르텐
사과나무어린이집
서마어린이집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소사주공어린이집
쉐마숲선교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시립고양어린이집
신정4동어린이집
아이조아 어린이집
오금숲어린이집
우림별빛어린이집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작은동지어린이집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해가람어린이집
행복한발도르프유치원
화랑어린이집

2020년 1월부터 현재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구립사과꽃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또래숲속학교
바람아래발도르프어린이집
별꽃씨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
서머힐어린이집
오금숲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
자연발도르프유치원
자연어린이집(용산)
크니크니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어린이집

후원자를 찾습니다!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글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카카오톡 steinercenter | 문자 010-5209-0532(사진 전송 가능)

문의 인지학센터 02-832-0523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자님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후원금영수증 발급, 후원자서비스 (소식지 발송 등) 제공의 목적 나. CMS 출금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자택/직장), 이메일, 출금일, 후원금액,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수집방법	후원신청서, 후원가입 웹사이트, 전화 등 이에 준하는 방식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 정보와 후원금 결제정보를 보관

■ 개인정보 취급 위탁 안내(든든버팀목 후원회원 해당)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자(수탁자)	엔컴소프트(주)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내용	후원금 출금 및 관리 등의 후원 처리 이행

■ 문자(SMS)발송 동의

1.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 및 서명하셔야 기금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후원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였으며,
위 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귀중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47-17) 우리빌딩 2층 ☎ 02-832-0523 / 010-5209-0532 FAX 02-832-0526 홈페이지 www.steinercenter.org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1월~12월)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입니다. 지난 한해 인지학센터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후원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도르프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 발도르프 교육인재를 지원하는 장학사업
- 슈타이너전집 출판을 위한 연구사업
- 발도르프 교육현장 지원사업

본 법인 정관 7장 32조에 근거하여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기부금의 수입·지출 금액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월별	수입	지출
1월	3,424,160	91,500	7월	3,293,100	90,240
2월	3,229,660	89,820	8월	3,103,080	3,088,980
3월	8,326,153	90,600	9월	3,114,429	4,088,680
4월	3,247,820	90,000	10월	9,204,100	16,089,760
5월	3,324,900	15,090,900	11월	4,033,640	88,440
6월	3,099,446	89,100	12월	8,352,537	89,700
소계	24,652,139		소계	31,100,886	39,077,720

2. 기부금 지출 내역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금액
2019년 3월	장학금 지급	3	3,911,258
2019년 6월	센터 웹사이트 구축 계약금	1	2,000,000
2019년 8월	전집제작(괴테 세계관의 인신론적 기초)	1	3,034,386
2019년 9~10월	현장교육지원 (학교아카데미)	24	4,032,000
2019년 11월	센터 소식지 발간 외	3	6,557,768
2019년 1~12월	교육자료 출판 및 전집제작(교사 루돌프 슈타이너를 만나다외)	10	12,142,728
2019년 1~12월	후원금 결재분 거래수수료	85	899,580
2019년 3~12월	연구개발	10	5,000,000
2019년 12월	오이리트미 사업지원	1	1,500,000
합계			39,077,720

3. 결산내역

활용실적	수입	지출	차기이월
2019년	55,753,025	39,077,720	16,675,305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장수원로 75-51

전화번호: 033-433-7653 (농장)

010-8337-7653 (길종각)



담양 파랑새 발도르프정원

이재희

(담양 살구나무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원장)

나의 공간은 원래는 아이들의 다락이었다가 게스트 하우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르던 계단과 다락을 뜯어내어 방을 만들고, 한옥의 서까래가 나온 부분이 부엌으로 변신해서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요리를 하시기도 하지요.

파랑새 발도르프정원은 순환하는 자연과 흙집 한옥과 아름다운 마당을 함께 나누고 싶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파랑새 정원은 자연이 펼쳐진 공간을 찾고 싶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문을 열면 땅을

밟을 수 있는 것, 새소리로 아침을 맞는 것, 동네에서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 소리, 뛰노는 강아지. 봄이면 들로 나가는 경운기 소리. 이런 평범하게 주어지는 삶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공간이었으며 내적인 공간을 서로 내어주고 받았던 기운이 남아 그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지도이자시골이라는 곳이 먹을거리를 키워내고 순환하는 작업장이기에 그런 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스위스 프리미엄 천연유기농 화장품 "파팔라"

스위스 파팔라는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창안한 생명농법인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환경과 괴 없는 생태학적 일관성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유럽 유기농 인증기관인 "NaTrue"의 인증을 받은 100% 천연유기농(화학성분 No!) 화장품입니다.

공정무역의 구현, 동물실험 반대, 글루텐과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비건 원료만을 사용하는 진정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스위스는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30년 넘게 아로마케어 제품의 선구자로서 유럽의 700여개 병원과 요양원에서 제품을 납품,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효능으로 유명한 파팔라 코리아의 베스트 셀러 제품 중 하나인 '오렌지블러썸 나비세럼'은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자랑하며 화사한 피부톤을 유지하게 합니다.

비티오렌지 오일과 씨벽손 오일에 함유된 성분이 치고 힘들어 하는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주며 식물성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알로에베라주스 성분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피부 나이를 낮게 합니다.

02-517-3603 (주)더블류네트웍스
www.farfallakorea.co.kr



뜨라네 발도르프

아이에게 주는 놀잇감은 단순한 형태이어야 한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놀잇감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

품목

- 발도르프 인형
- 발도르프 음악용품
- 발도르프 놀잇감
- 피클러 움직임교구
- 발도르프 미술용품
- 양모 놀잇감



-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 필요한 놀잇감의 완제품 또는 재료, 교구 구매 가능합니다.
- 물품 전시장: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 상담 문의: 02-832-0523, 010-6277-3732 (대표 한은숙)
- E-Mail: smallhan60@hanmail.net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mall.net
인쇄비 2,000원